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삶 속에서 그리스천으로서 바른 신앙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결실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1월 13일 (토) 제 1850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 감돌고 있다!

CT, 최근 설문 통한 복음주의적 교회 내 트럼프 찬반논쟁 결과분석 보도

정치적 양극화는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1년 동안 대부분의 미국 교회에서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궤적에는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으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음주의적 지지의 여운이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긴장의 잔재는 시애틀의 다운타운 코너스톤교회(Downtown Cornerstone Church)와 같은 교회에서 분명하다. 담임인 아담 시넣(Adam Sinnett) 목사는 "우리의 정치적 차이 속에서 일치를 배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놀랐다"고 고백한다. 젊고 역동적이며 첨단기술에 정통한 교회조차도 "극좌와

극우에 더 치우친 교인들이 지난 시즌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었다"고 시넣 목사는 말했다.

시애틀 교회의 경험은 연구 및 컨설팅 조직(Heart and Mind Strategies)이 이번 주에 발표한 데이터와 일치한다. 8월에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복음주의자들에게 정치적 갈등의 일부가 남아있음을 발견했다(A Year After the Election, Trump's Effect on Evangelical Churches Lingers)고 크리스천티티투데이(CT)는 보도했다.

미국인의 약 절반은 트럼프에 대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지지가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믿는다. 4명 중 1명은 트럼프에 대한 복음주의적 지지가 종교 참여 욕구를 감소시켰다고 말한다. 그리고 복음주의자 중 33%는 트럼프에 대한 지도자들의 지지가 친구와 가족에게 개인적인 증거를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교회가 최근 몇 년 동안 견뎌온 정치적 투쟁은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실제로 연합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니다"라고 시넣 목사는 말한다.

다운타운 코너스톤(Downtown Cornerstone)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다룰지 여부와 COVID-19 제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 교회공동체 안에서 개인관계, 소그룹, 리더십 결정에 따라 정치적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의 분열은 2020년에 한계점에 이르렀다.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고 목회자들은 전염병 대응에 대해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

다. 경합을 벌인 선거와 미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의 여파로 목사들은 음모론, 두려움, 진실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다.

긴장 속에서 어떤 교회는 지도자들과 충돌했고 어떤 목사는 교회를 떠났고 어떤 성도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나섰고 어떤 교회는 교회생활을 완전히 중단했다.

그러나 선거가 물러가고 전염병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2020년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고 느낀다.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논쟁의 강도는 사그라졌다.

분석가들의 질문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정치적 긴장의 강

도가 영적 성숙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고 듣는 보수적인 뉴스들을 통한 정보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였다. 저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리먼(Jonathan Leeman)은 이것이 둘의 조합이라고 생각한다.

워싱턴DC에 있는 9Marks의 편집이사인 리먼은 "적어도 몇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자유를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치적 논쟁이나 대화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많은 신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독교적 신념과 믿음에서 비롯된 투표와 정치적 참여를

볼 때 교회의 정치에 대해 이견이 없을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자신의 신앙이 정치적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미국인의 2배다. 대다수의 복음주의자(57%)는 2020년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복음주의의 기독교 가치와 일치하는 정책과 행동을 시도하고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믿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했다.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규정하거나 복음적 믿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복음주의적 입장이 어느 쪽이든 교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교회와 신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자칭 복음주의자 중 30%는 목회자들이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를 언급한 결과 주일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으며, 27%는 교회에 기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고, 33%는 친구에게 증거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3면으로 계속)



인간행동이 숲을 탄소 배출원으로 만든다

BBC, 세계유산 지정 숲마저 손상, 지구숨통 막는다고 보고

세계에서 가장 보호받는 열 곳의 숲이 탄소 배출원이 됐다. 인간 행동과 기후 변화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할만한 분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숲의 지구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대한 연구에서 나왔다.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10곳의 보호 산림의 탄소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세계 유산 숲의 크기는 독일 전체 면적의 두 배에 이른다. 연구는 또한 전 세계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숲 257곳이 매년 대기 중 1.9억톤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밝혔다(Climate Change: Human Action Turns Forests into Carbon Sources).

UN 산하기관 유네스코의 이번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테일즈 카르발호 레센데 박사는 "이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영국이 연간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의 절반에 이른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숲이 기후 변화 억제에서 맡은 중요한 역할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얻었다." 그러나 숲은 불법 벌목, 농지 확대, 기후 변화에 의한 산불 등을 포함한 일련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위성 데이터 자료와 현장 모니터링을 종합해 연구진들은 2001

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유산 숲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계산했다.

연구는 이러한 나무와 식물에 흡수된 수십억톤의 탄소를 분석하며 일부 숲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밝혀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숲들 중 일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숲들은 자연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간주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조웅철 목사



인터뷰 반혜진 권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ighthouse.com / cbc@lighthouse.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히즈핑거 (His Finger)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40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발행인 칼럼

모습은 달라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마지막까지 힘겹게 붙어있던 나뭇잎들이 낙엽이란 이름으로 하나둘씩 떨어지면서 2021년도 올 한해도 저물어 간다. 우리의 모든 나날이 그렇듯이 올 한해도 일상(日常), 기적, 또는 가시로 엮여져 왔다. 일상, 기적, 가시 각각 모습은 달라도 모두가 은혜를 흠뻑 머금고 있다. 사람은 특별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일상에 담겨 있는 풍성함은 특별함이 전혀 부럽지 않다. 하루하루 이어져 온 일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상의 은혜 가운데 마스크가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했던 마스크가 지금은 일상이 되었다. 지금(present)은 선물(present)이라고 하지 않던가. 지금 일상이 된 마스크는 무시무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잘 막아주는 선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상이 된 마스크는 매년 고생했던 감기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해준 선물이기도 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스크의 일상은 은혜의 일상, 감사의 일상이다.

기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럴 수 없는 일이 역전되는 것은 확실한 기적이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가을 새벽 부흥회가 있었다. 지난 화요일에 대표 기도자는 어느 여 집사님이였다. 기도 단에서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불같은 기도, 권세 있는 간구가 쏟아졌다. 그는 한동안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무엇이 맺혀 있었는지 어깨는 처져 있었고 가슴 치는 소리는 새벽마다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교회에서 뭔가 가장 슬프고 억울한 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그 소리가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렸다. 마침내 그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웅크림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바뀌었다. 가장 억울한 것 같았던 집사님이 이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역전의 기적이 그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놀려도/ 원망치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네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적의 은혜는 크고, 역전의 은총은 놀랍다. 역전의 기적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시 또한 그렇다.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한 한센병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감각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고통이었다. 가시, 인생의 고통이 주는 유익은 한 톨이 아니다. 올해 수많은 가시가 있었다. 코비드 19에도 감염되었고, 심장 수술도 받았고, 아내 또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어떤 뻘뻘했을까. 그런 가시가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은혜, 누릴 수 없었던 은혜들. 그렇다. 일상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은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습은 달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값을 길 없는 은혜이다. 올해를 돌아보며 일상에도 감사, 기적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 무한 감사 할 뿐이다.

흔하지 않은 성숙한 리더 "RARE 리더"

리더십저널, 마커스 워너/짐 와이더 박사 리더십과 뇌과학 연계 성숙한 리더 4가지 습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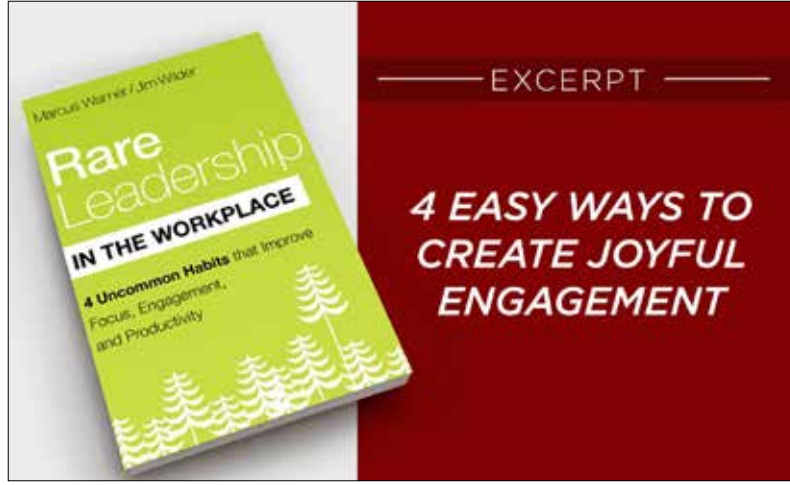
뇌는 두 가지 시스템인 '좌뇌'와 '우뇌'로 이분화 되었다. 좌뇌는 '슬로우 트랙'이, 우뇌는 '패스트 트랙'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슬로우 트랙'은 의식적인 사고를 사용함으로써 관리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슬로우 트랙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결과를 모니터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 결과, 성과 같은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슬로우 트랙이다. 반면에 '패스트 트랙'은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관계와 정체성,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영향을 준다. 관리형 리더십은 '슬로우 트랙'이 발달되고, 관계형 리더십은 '패스트 트랙'이 발달된다고 말한다. 마커스 워너와 짐 와이더 박사는 리더십을 뇌과학과 연결해 설명하며, 성숙한 리더들의 4가지 습관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을 훈련해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는 흔하지 않은(RARE) 리더로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다(Rare Leadership: 4 Uncommon Habits For Increasing Trust, Joy, and Engagement in the People You Lead).

첫째, 관계성을 유지하라 (Remain Relational)

평범한 리더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결과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동기를 얻는다. 그 결과, 관계보다는 결과와 해결책에 집중한다. 이러한 현상은 리더들을 고독하게 하고 일에 압도당하게 만든다.

RARE 리더십은 일과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만약 관계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되면 결과를 이루기 위해 감정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조직 안에 리더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생기고 그



강한 교회와 조직을 세우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 자신답게 행동하라 (Act Like Yourself)

리더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누

약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조용하고 선하게 보인다. 하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딱 한 가지 전략만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죽은 척을 한다. 또한 주변에 보호자가 없으면 자신

가 없다.

셋째, 기쁨을 회복하라 (Return to Joy)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리더로서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기쁨을 회복하는 리더는 단순히 자신이나 자신의 그룹이 지금 당장 분노, 슬픔, 두려움, 혐오감, 수치심, 절망감을 느낀다고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거나 그룹 정체성을 세우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는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들

'패스트 트랙'을 훈련해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도록 관계성 유지, 기쁨회복, 고난견디는 보호자형 리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는다.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브 코비는 '생산능력 VS 생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무시한 채 생산에 집중하면 뛰어난 단기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결과는 용량을 늘리는 데 투자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만약 관계가 기쁨의 근간이라면, 기쁨이 높은 성장을 이루는 팀의 추진력이라면, 관계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수행능력이 뛰어난 팀을 창조하고 건

어 설명할 수 있는데 포식자형, 주머니쥐형, 보호자형이다.

포식자형은 자기도취적인 리더십 유형이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에도 자비가 없고, 자신의 수치심을 다루는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수치심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무시하는 등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직 안에 두려움의 문화를 불러일으킨다.

다음으로 주머니쥐형은 양과 같이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취

의 기면을 벗어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

보호자형 리더는 바로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견고한 기초를 가지기 때문에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리더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리더다. 그들은 관계를 문제보다 더 크게 인식한다. 가면을 쓰지 않고 자신답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

고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이다. 리더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 만약 감정에 이끌린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할 때 분노에 의지하게 된다. 분노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을지라도 관계를 유지하며 나 자신답게 행동하며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4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 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도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 내: -지아이식(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KCC 담임목사 청빙공고

California Ventura County에 위치한 초교파 독립 교회인 Westlake Korean Community Church(WKCC)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 ▲ 미국 또는 한국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M. Div-이상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
- ▲ 담임 목사 / 부목사로써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분
- ▲ 미국 목회를 위해 합법적인 신분을 소유한 분
- ▲ 거듭난 증거가 있고 헌신적인 사명을 가진 분
- ▲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로 설교 및 소통이 가능한 분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가족포함)
추천서(목회자 2인, 성명, 연락처, 관계)
목회 비전 소개서, 학위 혹은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사본, 최근 3개월내 설교영상 2편

접수 방법

E-mail : wkcc.media@gmail.com or Allenkjo@gmail.com
우편 : 2630-A Townsgate Road, Westlake Village, CA 91361

접수 기간 : 10/17 - 12/05/2021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이며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통지

WKCC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 www.wchurch.org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

(1면에서 계속)
 여론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자의 약 80%가 2016년과 2020년에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친구이자 변영신학전도사인 폴라 화이트가 소집한 트럼프의 복음주의 동맹에는 제일침례교 달라스 목사 로버트 제프리스, 게이트웨이교회 목사 로버트 모리스, 사마리탄의지갑 회장 프랭클린 그레이엄과 같은 지도자들이 포함됐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반대했던 일부 복음주의자(예: 남침례교신학교 총장인 Albert Mohler)는 종교의 자유, 낙태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그의 실적을 바탕으로 2020년에 그를 지지했다. 하트 앤 마인드 설문조사에서 백인, 55세 이상,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가 충실한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옹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믿고 이러한 입장에 가장 동의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전 대통령에 대한 복음주의적 비평가들은 트럼프의 성급한 접근과 여성과 이민자에 대한 발언이 기독교적 가치와 상충되는 성격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North Point Community Church의 앤디 스텐리와 같은 목회자들은 트럼프와의 복음주의적 연합이 교회의 명성과 전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문조사에서 소수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주의적 신뢰성과 기독교 증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문조사는 복음주의의 소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설문 조사의 새로운 연구결과는 지난 달 퓨리서치가 발표한 데이터와 일치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복음주의에서 대규모 이탈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음주의는 큰 균열 없이 트럼프 시대를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흑인 기독교인에게는 분열이 남아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흑인 복음주의자의 64%가 "트럼프에 대한 복음주의의 지도자의 강박적인 지원과 그의 개인적인 실패는 많은 원인을 더럽히고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정서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비율의



백인 복음주의자(64%)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충실한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문제를 옹호"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동의했다.

트루엣 맥코넬 대학교의 조지아 목사이자 글로벌 연구 교수인 하비에르 차베스에 따르면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정치적 안정의 더 큰 추세를 반영하는 것 같다. 2020년 선거 "정치적 소음"으로 인해 라틴계에게 "어려웠다". "다른 배경을 가진 라틴계 사람들 사이에서 대통령에 대한 견해가 충돌했습니다. 일부 교회는 선거로 분열했고 일부 히스패닉 신자들은 정치 때문에 교회를 바꿨다"고 차베스는 말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현재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있는 멕시코계와 중미계 교회인 스페인어를 사용

하는 아미스타드 크리스티아나 인터내셔널(Amistad Cristiana International)의 목사인 차베스(Chavez)는 현재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의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려되는 것은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한 끊임없는 소음, 주택 가격..."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거 갈등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음주의자의 절반(52%)이 "복음주의 공동체의 일부가 트럼프와 독이 되는 정치로부터 복음 메시지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동의했다.

35세 미만의 복음주의자, 아시아인과 히스패닉계를 포함한 유색인종, 산지와 중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동의할 가능성이 컸다.

인간행동이 숲을 탄소...

(1면에서 계속)
 레센데 박사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위협은 농경지 잠식, 불법 벌목 등 인간이 야기한 위협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후와 연관된 위험도 발견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산불이다."

지난 몇 년 간, 유네스코가 '전례없는 산불'이라고 불렀던 산불이 시베리아, 미국, 호주에서 수백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다.

레센데 박사는 "나쁜 순환이다"라고 말했다. "더 많은 탄소 배출은 더 많은 산불을 의미한다. 이는 더 많은 탄소 배출을 의미한다."

산불은 단지 기후와 연관된 위험만은 아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유산의 탄소 기여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열대 우림 △홀드라스 리오 플라타노 강 생물권보전지역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미국과 캐나다 워터튼 빙하 국제 평화 공원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버튼 마콘와 산맥 △말레이시아 키나발루 공원 △몽골과 러시아 울수노르 호수 △미국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호주 블루 마운틴 지역 △도미니카공화국 모르네 트루아 피통 국립공원.

지난 2017년 도미니카공화국의 모르네 트루아 미통 국립공원 내 산림 약 5분의 1이 태풍 마리아에 의해 파괴했

다. 태풍 마리아는 지난 2017년 도미니카공화국의 모르네 트루아 미통 국립공원 내 산림 약 20%를 파괴했다.

레센데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보호받는 숲조차 세계적 기후 변화에 위협을 받는다."

"(전 지구적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행동은 이러한 숲이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작동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가 강력한 폭염과 파괴적인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이제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개막일에 맞춰 '2021 기후 상태보고서'를 낸 WMO는 "우리의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강

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이래 지난 20년간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처음으로 섭씨 1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21년 지구 해수면은 최고치로 상승했다. 보고서에는 지구 온도, 극단적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해양상태 등 기후지표 전반이 망라돼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지구 온도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가 이 기간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온도 상승이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극단적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며 "이 중 일부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론

청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동화 속의 아이는 창문 앞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미소 띤 얼굴로 잠을 깬다. 소설 속의 아저씨는 알람 소리에 허겁지겁 일어나 수업을 꾸는다. '들음'이 주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아니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청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이다.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색깔이 달라지고,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의 길이 나누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들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던 구약의 어느 시대들처럼.

배우 송승환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거의 시력을 잃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눈이 안보이니 귀가 열렸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겐 플러스가 됐어요. 이쪽 세상이 닫히면 다른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그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다. "못 보면 사물과 단절되지만 못 들으면 사람과 단절됩니다."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못 듣거나 못 본다는 사실 자체보다 외부와 단절된다는 것이다. 사실, '단절(斷切)'은 신체에 한정된 단어가 아니라 영적단어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상태'라는 사실을 짚어주고 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IT기술은 거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벌써 오래 전 청각장애인들에게 들려온 희소식은 듣는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였다. 자막은 음성으로 읽어주고 TTS(text to speech), 말은 문자로 변환해주는 기술 STT(speech to text)가 이미 굉장히 발달되어있는 상태인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기업에서는 기술설계를 통해 TTS기술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도 연동시켜놓은 것을 보면서 삼성과 LG에도 이러한 기술이 당연히 일반화되는 일에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실, 청각장애인들 뿐만이 아니라 타 언어와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에 지금의 통역App보다 더욱 효율적인 기술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활발하고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에 기대가 된다. 골드만삭스가 오는 2030년에 753억 달러 규모로 현재보다 3-4배 커질 시장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니뮤직, 스포티파이 등 유명회사들도 다양한 형태의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오디오북 시장이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오디오북 정기구독서비스 '윌라'를 운영하는 인플루엔셜은 지난 10월말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오디오북을 출시했는데 서비스 시작 하루 만에 다운로드 1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듣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오디오작업을 위해 제작사는 성우 16명을 동원해 200시간이 넘는 재생시간 분량 전권의 녹음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오디오콘텐츠 제작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듣는성경이 카세트테이프에 담겨 나오기 시작한지도 30년 정도가 되어온다. 속도도 있고 드라마형태도 있지만 정식 아나운서의 훈련된 음성으로 낭독한 성경도 있는 가운데 요즘은 기독교예인들도 성경을 읽어 유튜브에 올리거나 카톡으로 한 장씩 이어서 읽기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성경과 가까워하는 그룹도 많아지고 있다.

교회도 '듣기'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들려주어야 하고 어떻게 들려주어야 하는지를 더 고민하는 것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면 무엇보다 설교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져야 한다. 수많은 소리 중에 '좋은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 각자의 책임'이라면 더 깊은 말씀을 듣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청중인 성도의 몫일 것이다.

세상에는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면 성도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만물 모든 곳에서 들려온다. TTS나 STT기술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술개발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소리를 듣기위해 기술개발 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자연만물 속에 당신의 음성을 담아놓으셨다. 가을을 넘어 감사의 계절이 깊어간다. 하늘, 나무, 바람, 별, 구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가 담긴 음성을 듣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

djlee7777@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Midwest University는 텍사스 주정부 고등교육국의 인준과 연방정부 인가기관, SEVIS I-20 발행을 인준받아 Dallas, Texas 에 항공 조종사 면장과정, 항공 정비사 면장과정, ESL 과정을 오픈 합니다.

Midwest University College of International Avi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Pilot, Aviation Management Engineer
 M.B.A. Aviation Safety Management
 Ph.D. in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Management Leadership

항공경영학 학위 + FAA Pilot 면장 취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Professional Pilot Certificate Program(FAA)
 조종사 면장과정 10-12개월 소요 (FAA Certificate)

Certificate Program
 항공조종 교관, 항공정비 엔지니어 과정

* 미국의 타 항공학과에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SEVIS I-20, J-1 Visa)
 * 자가용, 계기, 상업용 FAA 면장까지 10-12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면장 취득 후 교관과정 (2-3개월 취득가능) 취득하여 교관으로 활동하여 1000시간 이상 타임빌딩 가능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Dallas Campu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Tel : (636)327 - 4645
 E-mail : dallas@midwest.edu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꽃이 떨어져야 열매는 맺는다

오래전 어느 날 저는 집사람이 집 뒤 뜰에 심은 호박씨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람은 농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호박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날 집사람은 호박 줄기에 꽃이 핀 것을 보면서 이렇게 꽃이 피는 곳마다

열매가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꽃이 피는 곳마다 열매가 맺을 수 있던 말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꽃이 핀 곳 뒤로 열매가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조금 자라자 곧바로 꽃이 떨어지

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저에게 참 귀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야 하고 누군가 내 영광을 가로채면 분노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수고한 나의 이름이 빠지면 섭섭해 하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사람들에게 의하여 무시당하는 것 같이 생각되면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기운이 빠지고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바탕 주변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후회와 함께 손에 쥘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목사인 저에게

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작년인가 뉴욕교회협의회에서 그 해에 임원과 각 부서를 맡은 분들의 이름을 발표할 것을 무심코 읽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교협에 등록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직책을 따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슨 작은 직책이라도 맡긴 것임이 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름이 이번 해엔 어느 부서에 있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교협의 일에 자진해서 유년분과를 3년인가 감당하고 목회 일이 바빠서 그 후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에든지 작게나마 내 이름은 있었습니 다. 그래서 그 책임이라도 하자는 마음에서 교협의 일에 나름대로 후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에는 전혀 내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어차피 직책을 주어도 못 할 것인데 무슨 상관이나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섭섭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유치해지지 말고 이번 해엔 더 열심히 도 우리가 생각하며 할렐루야 집회와 그 밖의 행사 때도 열심히 후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참 내 이름이 빠진 것이 무엇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려고 했나를 생각하며 스스로 창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의 삶에 꽃이 피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오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원리로 보면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잠시 찾아오는 꽃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

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엔 영원한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은 참으로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자신이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등장하시자 곧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역할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도 더 열매를 맺기 위해 나에게서 피는 꽃을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장로교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2. 원거리 코스를 잘 달렸다는 뜻입니다.

단거리 선수도 귀하지만 장거리 선수는 더 귀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아도, 그 먼 길을 잘 참고 견디어야 훌륭한 경주자입니다.

육상경기의 꽃은 Marathon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려는 싸움에서 이겨내야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신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거리 선수라야 가치가 있고 귀합니다. 1년, 2년, 5년은 잘 달리다가 중간에 주저앉으면 보기에 흉하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히12:1)을 실망케 합니다.

가톨릭은 3년쯤은 잘 달리다가, 막판에 가서 코스를 벗어났고, 중간에 주저앉아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창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

건될 수 있었고, 주 예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함으로 견디어낼 수 있었고, 날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최후 순교하는 날까지 잘 달려간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大先輩)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의 장애물, 멸시와 천대의 장애물, 물 이해와 비난의 장애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적 장애물, 죄와 싸우는 투쟁의 장애물, 주님이 주신 권위가 도전받는 장애물, 가문과 친족의 장애물, 유혹의 장애물 등등이 있고, 용처럼 인간으로는 견디어 낼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무겁고, 거칠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께서 앞서 가신 길인 때문에 반드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께서 내 어깨 위에 지워 주신 십자가는 피할 수도, 바꿀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벗겨 주시면서 “

한 구름꾼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었고, 날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최후 순교하는 날까지 잘 달려간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大先輩)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완주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주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승점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나날하고, 가장 낮아지고, 항상 배고프시고,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고도 지루한 인생길을 잘 통과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Tape Cutter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1-2).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였습니다.

1. 정해진 코스대로(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달리십시오!
 2. 원거리(장거리) 코스를 인내로써 잘 달리십시오!
 3. 모든 장애물을 잘 극복하면서 달리십시오!
 4. 완주자(Tape Cutter)가 되십시오!
- 그렇게 살면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6-8절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에서 옥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후 62년 경로마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서바나(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서바나를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66년-67년 경네로 황제 치하에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 옥중생활을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며, 또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후 네로 황제에 의하여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서신” 중 최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바울의 유연적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바울의 형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바울은 그 때 가장 외로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딤후1:15),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바울 곁에는 의사 누가만 있었습니다(딤후 4:10-11).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자신이 치고 먹인 교회를 목회할 후계자인 디모데는 멀리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교회들을 돌보면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병 바쳐 설립한 교회들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은 오직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외로운 나머지 디모데에게 두 번씩이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딤후4:9), “너는 어서 오라”(딤후4:21)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인생길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외로움, 곧 고독

입니다. 2)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날을 눈앞에 두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교회의 안전과 성장만을 생각하여 디모데에게 주님의 교회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며 많은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딤후1:13),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복음)을 지키라”(딤후1:14),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3:14),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1:8).

주의 양 무리를 목양하는 목회자는 항상 교회의 안전, 건

영국의 Glasgow Bible College 교수였던 바클레이 박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말씀에는 다음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 정해진 코스대로(법에 따라) 달렸다는 뜻입니다.

경주자는 정해진 코스대로(법대로/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야 합니다. 정해진 코스가 아닌 것을 아무리 잘 달라도 아무 상이 없습니다.

언젠가 올림픽 달리기에서 1등한 선수가 후에 금메달을 몰수당하고 1등한 것 취소를 당했는데 그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등하는 것도

강, 성장을 위하여서만 일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자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생활 방법이어야 합니다. 결코 교회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거나 믿을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께서 피 흘려 구속하여 주시기인 주님의 양 무리들을 목회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의 자제여야 합니다.

3)이 편지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딤후4:22)라는 말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를 “너희”라는 복수로 부른 것을 보면 디모데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본문 중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말씀의 뜻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코스, 곧 법대로 경기가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지식, 정치가 세계의 선진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국은 세계로부터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계, 학계, 정계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한 코스대로(법대로) 하지 않고 남의 눈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가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서두르지 마시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코스대로, 법에 따라(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오직 정해진 코스대로(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 아니라 평생을 달리는 길고도 먼 장거리 경주입니다. 바울처럼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3. 많은 장애물들을 잘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장애물 경주는 실수하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견디고, 잘 통과하였습니다. 동족 히브리인의 장애물도 있었고, 유대인 율법주의라는 장애물도, 이방인의 장애물도 있었고, 핍박과 가난의 장애물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의 장애물이 있어서 바울을 항상 고통했고, 견디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라는 장애물 등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 예수의 사랑에 압도되어 견딜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중에

이제는 편히 쉬어라”고 하실 때까지 “내 뒤통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완주자였다는 뜻입니다.

완주자를 영어로 Tape Cutter 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달렸어도 완주자가 아니면 실패자입니다.

언젠가 Marathoner 라는 영화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달리기를 즐기는 한 청년이 1등으로 달리다가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발이 돌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몸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거듭하면서 저는 다리를 끌고 몇 시간이 지난 석양에 경기장 결승점 Tape를 끊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본 만장

흔하지 않은 성숙한...

(2면에서 계속)

넷째, 고난을 잘 견뎌라(Endure Hardship Well)

RARE 리더의 마지막 특징은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이다. 고난을 견뎌내는 것의 핵심은 관계적 기쁨에 있다. 이것은 신약 전체를 통틀어 찾을 수 있는 개념이다. 토마스 모어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때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

운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수님 또한 기쁨을 통해 승리하는 본보기가 돼주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기쁨 그리고 기뻐하다 라

는 말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고난과 짝지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용량을 가진 RARE 리더는 금욕주의자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삶을 즐기고 수련간 기쁨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며 안 좋은 감정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연습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약점을 보여도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문제보다 관계를

더 크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인생의 아둔함

이슬람 시야파의 아슈라 축제를 보면 인생의 아둔함이 느껴진다. 아슈라는 680년 수니파에 항거하다 전사한 시야파 종교지도자 이맘 후세인과 전사들을 기리는 종교행사인데, 시야파 무슬림들은 아슈라 축제 때 칼이나 채찍, 손으로 이마와 등을 때리거나 상처를 내면서 이맘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한다. 등짝과 얼굴과 뺨은 몸에 자해를 하는 것이다. 온통 피로 몸이 흥건해질 때 까지 그렇게 자신의 몸에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힌두교도들 안에서도 그런 아둔함으로 보게 되었다. 저들의 우상인 소의 인분을 온 몸에 바르고 소의 젖으로 샤워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저들의 믿음인즉 자신들의 우상인 소가 코로나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와 같이 온 몸에 소의 똥을 바르는 것이었다.

이들을 가리켜 아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혹자는 남의 종교를 폄하하지 말라고 할런지

지고 움직이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경배하는 순간, 처음 창조된 인생의 목적과는 빛나간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이를 방해하며 미혹하는 악한 영, 귀신이나 사단 마귀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 영적 세력이 그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영혼에 스며들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우상자체가 신비한 효능을 통해 직접 그 경배자에게 살아 역사하는 존재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다.

영적지배,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할 때 이를 호시탐탐 노리는 귀신이 '옮겨니'하면서 그가 숭배하는 우상이라는 대상을 타고 악한 영들의 역사로 나

영력을 가지고 영향을 도모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한 사람의 존귀한 인격이 물질에 종속되고 지배되며 그 인격의 가치판단도 영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세상과 교회의 자랑

교회를 참 사랑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늘 한편 마음 구석으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 자아실현과 세상에 대한 공헌과 같은 꿈을 꾸며 일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아 세상의 일에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지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 그 자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너무 소중한 하여서, 자신은 사역자보다 더 헌신하고 기도하고 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평신도가 되고 싶은, 그런 은혜의 마음은 왜 가지지 못할까에 대한 생각들에 절로 탄식이 찾아왔다.

물론 이민교회의 특수상황에서 보면 '이곳이 평생 내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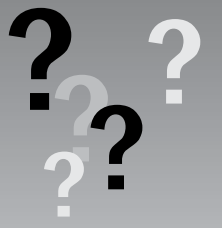
을 가지게 될 따름이다.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유대인으로서 배냐민 지파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며,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바리새인이며,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던 자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췌처럼 여긴다고 고백한다.

그런 바울이 배설물과 같은 자랑거리를 밖으로 드러낼 때가 있었다. 자신의 화려한 이력서를 자랑하며 드러낼 때는 오직 한 가지 경우뿐이었다.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간증할 때는 가감 없이 목소리 높이며 드러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최고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그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순간에만 삶의 간증처럼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 외 그에게 세상의 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전되었다고 써 있습니다(NIV).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나 천사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요? 그는 요한복음 "no one has ever seen God"를 말하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출33:20)으로 증거를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어느 쪽을 견지하나요? 목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LA에서

A: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장 미가엘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야곱은 그를 하나님(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불렀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천사를 교차하여 사용했습니다.(호12:3,4)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를 미루어볼 때 이 사람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와 천사(The angel of God) 즉 때로는 여호와와 사자로도 표기되는(창22:11;출3:2, 사6:12)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서 사람의 형태로 야곱을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12:4-5절에 의하면 창조된 천사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는 게 무난

로서가 아니라 불가견적(不可見)인 하나님의 RK(可觀)적 현현인 여호와와 천사로 만나셨다고 구약의 권위 있는 학자 카일 앤 델리취(Keil & Delitzsch)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팔복한 사건은 하나의 꿈이나 환상으로 간주되지 않고 감각적인 지각의 영역 안에 해당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것은 구약에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성자 예수님을 만나 대면한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출34:20,23; 딤후6:16). 그러나 이 말은 제1위 되신 성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사자로 표기되는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 즉 제2위되신 성자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하갈이나 야곱, 그리고 기드온, 마노아, 다니엘의 3친구처럼 산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창16:13; 사6:22; 13:21-23).

야곱은 하나님(히브리어로 엘로힘)을 대면하고 죽지 않았던 감격으로 브니엘이라고 지명을 명명하였습니다. 브니엘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으나 숙곳 동쪽(사8:8-9) 압복나루의 북편으로 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아둔한 세상, 주의 주되심(Lordship)

- 성도의 자랑, 추구, 사명

모른다. 오늘날 시대가 추구하는 사상이 워낙 상대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이다 보니 그런 생각,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과연 기독교의 신앙이 상대적이고 그저 타 종교와의 비교우위적인 차원의 문제이던가? 그렇지 않다. 기독교 신앙은 저들 종교보다 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주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념 속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인정일 따름이다.

악한 영, 귀신, 우상

우상이 무엇인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 낸 허상일 뿐이며 조각품에 불과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우상의 뺨을 때린다 한들 그 우상덩어리가 별별 일이나 맞상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그럴 리가 없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절하면서, 귀신에 붙들린 것과 같은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상자체가 생명력을 가

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칠을 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그 송아지는 그저 쇠붙이에 불과하고 금도금을 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경배받기 원하는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 앉아 하나님이 받을 경배를 대신 받으며 그 사람의 영혼을 영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금송아지 자체가 그럴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소나 형상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할 때, 그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 경배자의 영혼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우상덩어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하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이라고 한다. 물론, 늘 없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할 때 돈 자체가 어떤 영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저 필요에 의한 통화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가 이 돈을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섬길 때나 돈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게 될 때 마음의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돈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돈에 의해 조종이 되고 돈에 모든 인간의 존귀한 가치들을 모두 쏟아버리는 것이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돈 뿐이 아니라 지식, 학위, 명예 등도 마찬가지다. 그 자체가 생

라는 관점이 아무에게나 적용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단 돈 100불에 이사파리를 싸고 쉽게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분들을 보면서, 과연 그분에게 영적인 안식처인 교회는 그 100불의 한계도 넘어서지 못할 그런 곳이었나 싶은 마음에 아주 괴로운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사막광야를 살아가는 이민자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때, 전혀 이해 못할 일도 아니겠지만 깊은 한숨과 탄식을 내뿜을 따름이다.

상당히 관찮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한 공헌이라고 표현되는 인정과 성공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아직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분별치 못하고 있음과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일평생 주의 전에 머물며 주의 전을 위해 베풀 한 장이라도 없는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할 따름이었다.

성도의 자랑과 사명

성도의 평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주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희미해지는 순간, 세상에 대한 욕망이 크게 득세하기 시작한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주의 사명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안타까운 결말

은 그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자랑과 추구할 것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힘을 자랑하는 자는 힘을 추구하는 자며,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이다.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그 모든 것들은 똥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힘, 세상 지혜, 재능 등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똥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로 자랑질하는 것은 서로 자기 똥이 굵다 자랑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자랑과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수한 것들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자랑거리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 그는 죄인의 길과 오만한자의 자리를 분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

도는 결국 주님이 주신 되셔야 마땅한 자리를 노리며 주의 주되심을 위협할 것이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 그는 죄인의 길과 오만한자의 자리를 분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

어른이들의 성경이야기 **순식**
성경이야기로 시간 **순식**
순식 성경
종이요 개입구독

세는 결국 주님이 주신 되셔야 마땅한 자리를 노리며 주의 주되심을 위협할 것이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 그는 죄인의 길과 오만한자의 자리를 분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

주의 주 되심(Lordship)

많은 사람이 형식적, 명목적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만족해 한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태이다.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자로서뿐 아니라 주(주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오롯이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의 잘났음을 크게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실 것 같다.
davidnjeon@yahoo.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자기 비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미 가진 것조차 하나씩 내려놓아야 된다. 편하고 흥분하기 위해서다. 기력이 쇠해지면 자기의 몸조차 가누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무겁고 거추장스럽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져수록 욕심은 더 커지지만 한다. 비워야지! 내려놓아야 해! 아무리 자신에게 되뇌고 강조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은 너나없이 자신을 믿

기가 어렵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반증이다. 때론 남보다 더 믿기가 어려운 것이 자신이다. 남은 알 수가 없지만 자기 자신은 나름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가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면면이 가관이다. 나를 똑똑하고 이지적이고 뛰어나다고 여기는 제 잘난 맛에 살던 후보들일 것이다. 그런데 너 죽고 나 살자

는 진흙탕에 빠지면 모두 다 도간개인이 되고 만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고상한 척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독이 오른 성난 사대질이 난무할 뿐이다.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치를 보인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라 할지라도 흠도 점도 있기 마련이다. 더 높았고 더 누렸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니 그만큼 더 허물도 있을 것이다.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살면서 그만큼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래서 먼저 돌을 내려놓았다. 대통령에 출마할 정도라면 당연히 흠도 점도 많을 수밖에 없다. 자의였던 타의였던 의혹이 제기되면 진솔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모 후보에게 기자가 만약 다음 생애서 또 대통령과 아내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찌하

겠느냐고 묻자 아내를 선택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일진대 지금 제기되는 의혹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 감춰두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되고나면 다 감춰지거나 물릴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것일까? 진실은 언제든 드러나게 되어있다. 촛불 집회에 이는 탄핵으로 무너진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 받은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 체면도 권위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의 마음을 풍기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비움은 채우기 위해 필요한 절제다. 채움의 우선순위가 비움이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교훈하신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기 비움 즉 자기 부인을 통해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 받은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 체면도 권위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의 마음을 풍기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비움은 채우기 위해 필요한 절제다. 채움의 우선순위가 비움이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교훈하신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기 비움 즉 자기 부인을 통해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 받은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 체면도 권위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의 마음을 풍기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비움은 채우기 위해 필요한 절제다. 채움의 우선순위가 비움이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는 물건들이 삶의 집이 되고 만다. 마음도 다르지 않다. 지난 세월을 잊는 것이 은혜라는 말을 왜 하겠는가? 살아온 세월의 기억과 추억들이 그대로 머릿속과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산만하고 헛갈려서 오늘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워야 한다. 휴지통을 버리듯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혀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6:34)고 하셨다. 여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날의 지금만이 내 시간이다. 여제를 비울 수 있어야 오늘의 지금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한 해의 회로애락이 다 비워져야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소망을 채울 수 있다. 이것이 우선순위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최근 "평균적인 미국 목회자와 교인이 늙어간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FACT(Faith Communities Today)의 2020년 연구 결과를 통해 미국교회의 고령화에 대해 보도했다.



FACT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미국교회의 65세 이상의 교인은 5% 증가했다. 물론 이런 고령화 추세는 미국사회에도 같이 일어나는 추세지만 사회보다 교회 고령화 증상이 두 배 더 많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7%가 65세 이상이지만 FACT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미국교회의 교인 33%가 65세 이상이다.

또한 미국에서 18-34세 사이 청년 성인은 미국 인구의 23%이지만 교회에서는 14%에 불과하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이 연령대는 교회에 다니던 십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와 일치한다.

전체 미국교회의 4분의 1은 적어도 절반은 노인이지만 주류교단(미국장로교, UMC, 성공회 등) 개신교회는 고령화 비율이 더 높아 42%의 교회는 절반 이상의 교인이 65세 이상이다.

교인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고령화되고 있다. FACT 연구에 따르면 평균 성직자의 나이는 2000년 50세에서 오늘날 57세로 높아졌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FACT 연구는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연기하고 있으며, 신학교에 등록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추세가 조만간 역전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한다.

목회자와 교인이 고령화되는 경향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목회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교인들의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것. 45세 미만의 목회자들은 평균 65세 이상인 교인이 27%인 교회를 이끌고 있지만, 노년 목회자들은 40%가 노인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FACT 보고서에 따르면, 연로한 목회자와 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노인인 교회는 더 오래전에 설립된 교회일 가능성이 높다. 이 3가지 연령 요인은 회중이 변화할 가능성이 적고, 영적 활력이 감소하고, 새로운 회원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적고, 지난 5년 동안 성장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FACT 보고서는 단순히 젊은 교인이 더 많다는 것이 쇠퇴하는 교회를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나이가 많은 교인이나 목사가 있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교회에서 노인들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며, 가장 충실하고 헌신적인 참가자이며, 헌신적인 자원 봉사자이며, 강력한 재정 기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영적 지혜와 역사를 위한 그릇"이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젊은 목회자들보다 열등한 것도 아니라며 65세 이상의 노년 목회자들은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회중과 잘

어울리고, 갈등이 적고, 재정 상황도 안정됐으며, 젊은 목회자들만큼 혁신적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교회들의 목표는 정년에 도달한 교인과 목사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활용하고, 젊은 성인들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들어온 트럼프...공화당, 버지니아주 탈환

미국 집권 민주당이 12년 만에 정치적 아성인 버지니아주를 공화당에 빼앗겼다. 2일 치러진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의회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이번 선거 패배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총체적 정책 실패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즘(트럼프주의)이 여전히 미국 백인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NYT, WP 등 미 언론은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글렌 영킨(54) 공화당 후보가 테리 매콜리프(64) 전 주지사를 따돌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들은 오전 3시25분 현재 개표가 100% 완료된 상황에서 영킨 후보가 50.7%의 득표율로 매콜리프 후보(48.6%)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주지사 선거와 함께 동시에 치러진 부지사와 주 검찰총장, 주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영킨 후보 지지유세에 나서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거물급 민주당 정치인이 총동원됐을 정도로 민주당-공화 양당의 총력전이었다. 그런 만큼 바이든 행정부로서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버지니아주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09년 이래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였다. 1년 전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 따돌렸다.

NYT는 "이번 선거 패배로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까지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공화당이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의 취약점을 공략하면 되는지를 잘 보여준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NYT에 따르면 영킨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정책 드라이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피고들었다. 고유가발 에너지대란, 인플레이션으로 유권자들의 체감 물가마저 치솟자 이 모두를 '바이든의 무능'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신문은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교묘하게 섞으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이기는 '공식(formula)'이 완성된다"고 전했다.

WP도 "영킨은 한때 '젊은 트럼프'란 별명으로 불렸지만 정치성향은 트럼프즘과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트럼프와 등을 지지 않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을 집중 부각시킨 전략이 온건 공화당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성향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까지 얻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내 차기 대선주자 중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하버드대 미국정치학센터와 헤리스여론조사의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과 무당파의 47%가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고 2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8일 유권자 15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위는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였지만 10%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려 37%포인트 격차다. 3위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으로 9%였다. 응답자의 19%는 지지 주자를 꼽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공화당 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펜스 전 부통령(23%)과 드샌티스 주지사(21%)가 경합을 벌였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12%로 3위였다.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경우 그가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다는 최근 여론조사들과 이번 조사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권 재도전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인 64% "바이든 재선 반대"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이 반등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최저치를 경신중이다. 미국인 3명 중 거의 2명이 바이든의 재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에 이달 3-5일 보스턴 소재 서퍽대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최저를 기록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에머슨 칼리지가 이달 3-4일 진행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율은 41%로 지난 9월(46%)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USA투데이·서퍽대 조사에서는 이보다도 3%포인트 더 낮은 30%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6%는 바이든이 예상보다 대통령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중에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한 유권자 16%가 포함돼 있다.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선에 나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자는 64%였다. 민주당원 28%를 포함한 수치라고 USA투데이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에 반대하는 여론은 공화당 24%를 포함해 58%로 나타났다. 바이든 재선 반대 여론이 트럼프 재출마 반대 여론보다 높다.

시사 주간 뉴스위크는 "바이든이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지지받는 것보다 트럼프가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더 인기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설했다.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면 공화당이 46%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38%)에 크게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하원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려는 공화당에 좋은 징조라고 UST투데이는 설명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집계한 바이든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42.6%다. 반대 여론이 51.1%로 8.5%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바이든이 얻은 가장 높은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서 발표한 48%다. 지난 3-4일 진행한 이 조사에서 바이든에 실망했다는 응답자는 47%로 지지 여론과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 침례교도 사는 친주 공격

미얀마 군부가 서북부의 친주(州)를 지난달 29일 포격해 2개의 교회를 비롯해 160세 넘는 건물이 소실됐다고 미국 크리스치애니티투데이(CT)가 최근 보도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도 친주에 모여 사는 친족 90%는 기독교인으로 대부분이 침례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접한 침례교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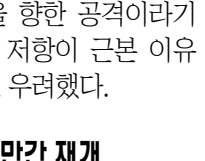


친주의 반군부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은 쿠데타 이후 지속해서 군부와 충돌을 빚고 있다. 유엔 전문가들도 "군부가 친주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친주의 탄광에 집중된 이번 포격 후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사상자 집계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CT는 전했다. 이번 포격은 국제구호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실까지 불타올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기독교 인도주의 봉사단체인 '프리 버마 레인저스'의 데이브 윌버그 대표는 "정부군이 친주를 공격한 건 기독교 신앙을 향한 공격이라고 본다. 군부에 대한 그동안의 저항이 근본 이유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평양심장전문병원 건립 조만간 재개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유엔안보포럼 이사회(안보리)에 신청한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이 최근 승인됐다. 이에 따라 교회가 북한 평양에 건축을 시도했다가 중단된 평양심장전문병원(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안보리에 따르면 산하 대북경제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한에서 여의도순복음재단(YGMF)의 평양심장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재 면제 기간을 늘려 달라는 YGMF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0월 28일까지 물품 반입을 허용했다. 이로써 병원 건립에 사용할 건축 자재를 비롯해 CT 스캐너, MRI 같은 의료장비 등 모두 1254개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대북경제지원위원회는 다만 "효율적인 운송·통관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물품 운송 횟수를 3회 이내로 줄여달라"고 권고했다. 또 "제재는 북한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유엔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면서도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인의식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한 계획에 동참하여 수고할 일꾼을 찾으신다. 소명을 받은 자가 전심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신다.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남들보다 신앙이나 인격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 꾸준히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듯하다. 목회자 청빙과정을 살펴보자. 회사에서 직원채용을 위해 공고와 내고, 지원자들을 심사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고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자격조건과 구비서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타 지역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사역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에 이런 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누가 선정했느냐는 질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공동의회에서 청빙투표에 임한 성도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생각에 그치기 때문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투표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해당 목회자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혹시 교회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매우 인간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민감한 금전문제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보자. 고용된 직원으로 간주하는 경우 월급 또는 연봉 개념으로 목회자를 대하게 된다. 매년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정할 때 잘못된 주인의식이 발동되어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신을 고용인이라 간주하는 목회자의 잘못된 생각이거나, 교회와 성도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금전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라도 교회와 목회자 사이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개념이 아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개입하고 계심을 함께 의식해야 할 것이다.

신뢰와 의뢰

나아가서 목회자 선택을 직원 고용으로 간주할 때 신뢰와 의뢰와 연관

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회가 개척되어 한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온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교회 역사가 길어질수록 새로운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반복하면서 주인의식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특정 기간 동안 사역하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은퇴하기에 우리가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려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어찌 보면 이치에 맞는 듯하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교회를 지키려는 생각을 지닌 성도들을 칭찬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를 언제가 떠날 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유가 목회자의 지나친 열정과 과욕이 불러오는 문제도 있다. 목회자는 교회의 각 부서를 맡아 사역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 어떤 형태라도 군주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백성을 섬기고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목회란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목회자들로 인해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다면 이 역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와 목회자가 동일하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통해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신학교는 시간과 환경의 제한으로 인해 목회에 관한 모든 실천적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

부교역자들이 목회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이다.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을 실천적으로 습득하고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배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의 잔뼈가 굵어지게 된다.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 외에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람이 누구이며 교회가 어떤 곳인데 대해서도 배워간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교역자들을 미래 지도자로서 성장시키는 사명을 인

자들을 앞에서 무조건 침묵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고 따라가던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해있다. 목회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뜻을 표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불변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소통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과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아주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목회자였던 필자의 부친과 동료들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목회자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신분을 지닌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남들에 비해 무엇을 많이 가지거나 대중에게 널리 이름을 알리는 스타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신실한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듯하다. 그렇다. 존경심이란 상대에게 강요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향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딪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숙제이다.

이와 동시에 존경심은 쌍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이 지닌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하는 마음은 상통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벌어져 세워진 담은 서로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다. 목회자들을 향한 마음이 닫히게 되면 가장 먼저 그 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귀 역시 닫히게 된다. 영적결핍과 함께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목회자 역시 성도에 대한 편견 또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역자로 전락하게 된다.

과거 한국교회 지도자였던 중 한 분이 성도가 교회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귀한 조연이라 생각된다. 원수 마귀는 에덴동산 이후 영클어진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방해하여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세워진 소중한 도구이다. 교회 자체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큰 해를 입히는 대상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더욱 절실하다. 잘못된 주인의식과 선을 넘는 책임감을 과감히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6)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32) - 주인의식과 지도자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회 내 인간관계 문제에 가장 큰 해를 입는 대상은 예수 님 교회는 부교역자를 미래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사명 인식해야

상으로 간주하여 조성된 강한 주인의식으로 인해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최선을 다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목회사역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용주의 입장에서 '업무 설명서'를 제시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된다. 목회자에게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주로 설교와 심방을 담당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의식을 심어주려 한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일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다. 말씀준비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를 수 있다. 만일 주인의식이 동기가 되어 목회자에게 제한된 권한을 부여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주어질 권한 밖에 있는 일이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목회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있다. 즉, 교회라는 특수한 배경으로 인해 권한은 없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비논리적인 상황이 벌어질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미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목회자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목회사역을 의뢰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으며 목회활동을 통해 성도들을 지도하며 인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명

담임 목회자 외에도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목회자보다는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주로 그들은 교육부서, 교구, 행정, 또는 각 사역 분야를 맡아 사역에 임하고 있다. 신학교에 재학 중인 전도사로부터 오래전 목사 안수를 받은 사역자까지 신분이 매우 다양하다.

일부를 제외한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향후 담임 목회자로 쓰임을 받기 위한 훈련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신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은 목회자들에게 필수적인 학문과 경건을 중시하여 짜여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식해야 한다. 교회의 특정한 분야를 맡겨 일한 시간에 따라 사례를 하는 현실을 뛰어넘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보다 넓은 마음으로 부교역자를 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불하는 만큼 일을 해야 한다는 태도는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형편이 닿는 대로 금전적 도움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학생들이 공부와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교역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위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여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하나님께서 앞날의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확신과 함께 목회를 실천적으로 배우고 습득하려는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

존경심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유교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목회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감사한인교회, 나정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주요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With Corona-19 문화: 종말론적 조명(Outlook)” (2)

경계를 너머선 문명화

많은 학자들은 Corona-19의 근원을 중국 우한에서 서식하는 야생박쥐로 지목하고 있고 중간숙주인 천상갑이라는 포유류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계가 상생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대로 모든 피조계의 경계를 정하셨다.

(시74:14)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시 104:9,14) “주께서 물의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특히 인간의 보호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야생동물의 경계까지 정하셨다.

(창9:2) “땅의 모든 짐승과

연구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맹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순간임을 밝혀냈다.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건너가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고 하며 심지어 자유롭게 공중을 나는 새들조차도 도로 위를 횡단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는 점도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계는 경계를 정해놓은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지금의 핵무기는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보다 1백만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토록 위험스런 살상 무기가 전 세계에 25,000여개가 존재한다. 핵 확산 방지조약(NPT)이 체결되었지만 언제든 북한처럼 탈퇴하면 그만이다. 앞으로의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일까? 핵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선 국가 상호

의 깊게 지켜보았다. 이세돌씨가 겨우 1승하고 나머지 인공지능에게 4패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안겼다. 이후 인공지능 알파고는 세계 바둑 1인자인 커제와도 겨루어 3승했고 이후로 68전승했다고 한다. 인공지능에는 알고리즘 능력과 스스로 학습하는 deep learning 시스템이 있어서 더 더욱 인간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전 영역을 망라한다고 하니 이 또한 기대감을 넘어 오히려 인간 상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하고 있다.

아마존 알렉사(Amazon Alexa)는 아마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알렉사는 아마존 에코에 처음 사용되었다. 사용자는 아마존 에코를 이용해 알렉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알렉사는 음악 재생, 알람설정, 날씨정보 제공, 교통정보 제공, 대화기능

하나님 창조원리에 순응하는 자연계 파괴하는 건 인간 핵개발, 인공지능 등은 미래 인류세계 위협으로 다가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들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창조하심으로 사람의 거주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사람이 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팀들이 퓨마의 먹이를 숨겨놓고 동작감지기, 녹음기, 몰래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먹이를 취하는 퓨마의 행동을 실험했다. 퓨마가 먹이에 접근할 시 녹음기에서 사람 소리가 들릴 때에 83%가 즉시 도망쳤지만 청개구리 소리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쉽게 먹이를 취하였다.

순응하는 데 비해 오히려 그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야생동물이나 천적이 아닌 다른 아닌 인간의 욕망이다. 오늘날 피조물의 파괴와 탄식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롬 3:23),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요일2:16)에서 기인한다.

핵무기의 위협

원래 핵무기는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1945년 8월 6,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당시 16만6천명이 사망하고 이후 원폭 후유증으로 20여 만명이 사망했다. 이후 미국은 물론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이스라엘과 북한까지도 핵보유국에 속하게 되었다.

간에 진정된 신뢰와 동맹관계가 필수적인데, 현대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극단적 정종일체의 이슬람주의가 혼재하는 가운데 국제연합의 역할은 자국중심의 국수주의(Ultrnationalism) 혹은 배타적 국가주의(Exclusive Nationalism)로 흐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 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 이기적인 상호 평화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 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의 가상세계

우리가 또 눈여겨 살펴볼아야 할 지점은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출현이다. 일전에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의 장면을 주

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인공지능에 데이터(data)만이 아니라 감정을 넣는 기능이 이미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을 다루는 인간의 그릇된 생각이나 감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의지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처음에는 인간의 편대로 유용하게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인간 욕망이 가져다주는 끔찍한 윤리적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잘 간파하고 있는 Google의 기술 이사이자 발명가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기술과 감성까지 갖게 되면 더는 인공지능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할 때는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살상무기로 돌변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johnjdc@yahoo.com

인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이혼가정 자녀외복(9) 아버를 용서합니다

오늘은 나의 12번째 생일이고요. 다음 달부터 중학교에 가게 됩니다. 왠지 이번만큼은 아빠에게서 전화라도 올 것 같아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밖은 캄캄해졌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을 때 엄마와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나는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 마음을 다 읽고 있었는지 엄마는, “아빠가 되는 것이 두려워 떠나갔단다. 아빠를 용서해보자.” 한번도 보지 못한 아빠...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는데... 용서? 어떻게 하는 건가?

위의 경우와 같은 경우 곁에 있었던 부모는 하던 일을 제쳐두고 자녀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어 격려하는 형태의 질문으로 자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토해낼 수 있게 한다면 정서적인 응급처치가 될 것입니다.

용서란 미움과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찌꺼기를 떠나보내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부모는 그들의 생명 자체이며 절대적인 존재만큼 부모를 본능적으로 용서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분노의 감정은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행여라도 ‘여지껏 없던 사람을 왜 갑자기 찾는 거니?’ 등의 자신의 상한 감정까지 실어서 자녀에게 쏟아 붓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되는 걸 느끼면서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다음은 곁에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 친지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의한 분노를 품고 살지 않도록 용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만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고 설명하십시오. 하지만 용서는 강요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또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자고 하시면 어떨지요. 아울러 자신을 가장 곱씹은 죽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던 (눅23:33-34)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신다고 말해주면 자녀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의 경우는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에 대한 용서에 대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가진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면서 쉽게 용서를 말하기 전에 참음성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말씀 중 요셉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창42-45).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종으로 팔리게 되고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져 식량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 시험을 거친 뒤 요셉은 자신을 밝히며 형들을 용서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자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며 반듯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더해질 것이라고 격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hyojungy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제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공부: 오후 8:30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전인종족성경공부: 매주 토요일 오전 5:30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토) 주일 2부 오후 1:50(토) 주일학교 오후 1:50(토) 청년예배 오후 3:10(토)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화-토) 금요기도회: 화, 목, 금, 토 금요영양 기도회: 매월(토)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천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원망과 분노를 이기는 길

코로나 팬데믹이 1년 10개월을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분노조절기능을 잃고 가정과 사회의 큰 문제가 바로 원망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원망이 일어날 때 감사로 원망을 이겨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을 걸쳤으며, 머리위에 지붕이 있어 잠을 잘 수 있다면 당신은 지구 전체인구 75%보다 부유합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거스름돈이 있다면 당신은 세계8%의 부유층입니다. 전쟁의 위험, 난민, 투옥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이나 쓰라린 굶주림을 경험해보지 않은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인구에 비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당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법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3:15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가만히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보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모두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원망이나 불평보다 훨씬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신앙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독립기념일 다음날엔 달걀을 대부분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전날 불꽃놀이에 놀라고 분노한 닭이 낳은 달걀엔 아드레날린과 독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분노는 대인관계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분노와 미움을 품으면 마귀가 조종하게 됩니다. 분노는 바로 마귀의 발판이요 손잡이입니다. 에베소서 4:26-27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분을 낼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순간 내 자신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3가지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분노가 일어날 때 인내로 이겨야 합니다. 잠12:16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했습니다. 지금 화가 나지만 5분, 10분,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참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 욕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하고 우연히 동석하게 되면 저절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없을 때는 슬

쩍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피해 버리는 것도 일종의 인내를 키우는 비결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인내로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분노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 화보다 더 큰 사랑을 품으려고 노력한다면 분노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에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뱀전 3:8-9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99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백인 대통령 드클러크와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던 만델라가 화해를 했습니다. 드클러크는 3백년 남짓 남아프리카를 장악해온 백인 세력의 대표자였습니다. 만델라는 바로 그 세력 밑에서 27년 동안 감옥살이로 젊음을 다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27년간 얼마나 증오와 분노가 끓어올랐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드클러크에게 부통령이 될

것을 제의했습니다. 드클러크는 만델라의 제의에 수락해서 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만델라와 드클러크는 흑백화합을 이루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노벨상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의롭게 보고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마5:9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어떤 분노나 증오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나갈 때 우리는 분명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딱딱한 철광석이라도 수천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아 버리듯이 오늘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이런 포용력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다면 어떤 분노도 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넓은 가슴을 품고 분노와 마귀권세를 이겨 나가는 참으로 귀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토피스가 되었던 해리 오처드(Harry Orchard)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으나 20살이 되면서 친구를 잘못 만나 방탕의 길로 들어섰고 아이다호 주지사 스투넨버그 씨를 암살했습니다. 그런데 오처드에게 살해된 주지사의 부인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

처럼 우리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도책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오처드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리며 용서한다고 기도하던 그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재판부가 모던 클리블 크릭 정거장 폭파사건을 위시한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오처드는 감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자기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고 동료 죄수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전도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포악한 살인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원수의 마음을 녹이고 눈물로 회개시키는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분노로 치밀어 오를 때, 미움과 증오로 사로잡힐 때 인내로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 성령의 감화로 이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ngkpkak@hotmail.com

16:24-26)'를 설교했다. 류재덕牧사는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있는가? 팬데믹의 긴 기간 동안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가? 교단문제로 걱정근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걱정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감옥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호준 선생 소년과 손기호 장로(일서연합감리교회) 사회와 곡태후 장로(서부평신도연합회 고문) 기도로 시작된 찬양축제는 소프라노 박선우, 서부평신도연합회 나성중창단, 테너 오위영 목사, 크리스틴 정 마림바 연주자, 벨리연합감리교회 핸드벨 찬양, 피아니스트 제갈소망이 무대에 올라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연을 했다. 또한 영상으로 연합합창(지휘 채홍식), 연합합창(지휘 김미선),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의 바이올린 박은상, 강우진, 피아노 김소현,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의 공연이 있었다. 이날 찬양축제는 남가주주커스 회장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인/터/뷰

주빌리(발달장애사역)를 위한 특별 전시회 반혜진 권사 독학으로 배운 그림그리기... 생활용품 재활용 300여점 선보여

특별한 작품들로 구성된 주빌리를 위한 특별전시회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PARK VIEW GALLERY에서 열렸다. 전시회를 준비한 반혜진 권사(충현선교교회)는 작품 하나하나에 의미와 사랑이 담긴 300여개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금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를 들려줬다.

충현선교교회 장애부를 섬기고 있는 반혜진 권사는 이 부서를 섬기며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찾아보고 돈도 벌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팬데믹을 맞게 됐고 반 권사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 기간 동안 4년여 전부터 계획하던 작품들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작품들을 만들어 전시를 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주빌리 사역을 위해 쓰기 위해서였다. 작품을 만들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하는 반 권사는 "무엇인가를 구상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고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셨다"며 "이 작품들이 아이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작업에 몰두했고 즐겁고 감사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시회까지 하게 됐어요. 이 전시회는 4년 전부터 시작해 팬데믹 기간에 마무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반 권사의 작품에는 선교지의 흔적들도 많이 묻어 있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후 그곳을 생각하며 그린 작품 속에는 황금돛과 느헤미야 성곽, 통곡의 벽, 예수님의 기념교회, 무덤, 이스라엘의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케냐의 가족을 상징하는 조각품도 있었다. 각 선교지에서 쓰다가 가져온 동전들도 작품 속에 등장했다. 특별히 반작가의 작품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생활소품들로부터, 병, 휴지, 골판지 등 생활용품의 재활용으로 구성된 공예품과 손뜨개질가방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반혜진 권사 기간에 이 물건들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게 됐죠. 빈 박스, 빈 병, 종이들... 이것들이 작품으로 변신한 것입니다"라며 환하게 웃는다. 전시회에 앞서 오프닝리셉션에서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는 "반 권사는 팬데



인형 등 다양한 작품 300여점을 선보였다. 작품들을 설명해줬다고 생각하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에 미술재료를 사서 시작했어요.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없어요. 그냥 독학으로 했어요..(웃음), 그림을 그리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시간과 돈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오늘 이렇게

막 기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다 너무 감사하다"며 이사가 42:1-4의 말씀으로 "팬데믹으로 낙심하는 때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며 연약한 사람들, 주빌리를 위해 작품을 만들었다. 주변에 있는 생활의 자료를 활용해서 귀한 예술작품을 만들었고 열방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셨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치하하며 말씀을 전했다. <이성자 기자>



UMC 전국 평신도연합회 찬양축제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찬양으로 하나 되는 축제 UMC 전국평신도연합회 찬양축제 성료

연합감리교회(UMC) 전국평신도연합회 찬양축제가 '함께 모여 기쁜 찬양'이라는 주제로 6일 오후 5시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에서 열렸다. 연합감리교회한인교회 총회장이철구 목사(남부폴리디연합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회가 찬양으로 하나 되는 축제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함께 찬양하는 연합감리교회 형제자매들이 찬양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움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으로 행진하게 되기를 바란다. 찬양은 성도들의 의무이자 권리다. 아름다운 찬

양축제 통해 한인연합감리교회 지체들이 하나 돼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평신도연합회 회장 안승주 장로는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은 영상 온라인 연합찬양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버추얼 코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20여 교회와 참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 총회장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 되는 한인연합감리교회(행

한인가정상담소 11월달 선물후원 캠페인 12월 연말파티에서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케서린염)가 11월 한달 동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캠페인은 11월 한달간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을 받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구입한 뒤 12월 4일 열리는 연말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위탁가정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한인가정상담소 소셜워커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하고 있다.



케서린 염 소장은 "연말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전해 주셔서 지난 6년간 위

탁가정 아이들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많은 한인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있는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개인 수표를 한인가정상담소로 보내거나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후원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 위시리스트에 미리 등록된 물품을 선물로 보낼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이는 sslee@kfamla.org/(213)235-4848로 하면 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동지 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 100여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췄다. 이 가정들은 한인은 물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동부교계 기사판

제 17회 밀알 추수감사절

뉴저지 밀알선교단(단장 강원호 목사)이 주최하는 제 17회 밀알 추수감사절 행사가 11월 27일(토) 저녁 7시30분부터 9시 까지 유튜브로 열린다. 영상협력은 GCC교회가 한다. 일인당 참가비는 100달러이며 교회 및 단체 후원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mijumilal.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201)530-0355, 638-5148, miju92@gmail.com

“청소년 마약중독 해결 및 해독 세미나

지역교회부흥선교회(회장 허윤준 목사)가 주관하는 건강플랜/은퇴플랜 세미나 “청소년 마약중독 해결 및 해독 세미나”가 11월 30일(화) 오후 7시부터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채왕규 목사(뉴비전청소년센터 대표), 서니김 디렉터, 심용석 테너가 특별출연 한다

▲문의: (718)637-1470

심리치유목회 상담 전도 무료 세미나

(사)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 최귀석 목사(행복으로가는교회 담임)가 강의하는 심리치유목회 상담 전도 무료 세미나가 11월 16일(화)과 18일(목) 오후 2-5시, 뉴저지와 뉴욕에서 각각 열린다. 뉴저지는 예수마을교회(201-927-7041), 뉴욕은 늘기쁜교회(718-359-0691)에서 열린다.

▲문의: (929)928-2569

‘Zoom으로 만나는 Teen Prasso Course’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Teenager 자녀들을 위한 ‘Zoom으로 만나는 Teen Prasso Course’ 4기가 개강된다.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미주동부시간) 6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비 80달러(교재비 20달러 포함) 입금하면 교재를 미리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등록링크 <https://forms.gle/6yArKvqrig2iw3t67>

▲문의: (646)300-4790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 시즌2’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ZOOM으로 만나는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 시즌2’가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8시50분(미주동부시간) 6주간 열린다.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60달러(동재와 셋째는 40달러). 등록은 <https://forms.gle/wrWKEp32pw3BeBT15>

▲문의: (646)300-4790

뉴욕가정상담소 44기 핫라인 자원봉사자 모집

뉴욕가정상담소가 제 44기 자원봉사 교육에 참여할 봉사자들을 모집한다. 교육은 11월 30일(화)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3주간에 걸쳐 총 5회 중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시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101, 법적지원, 경제교육,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뉴욕내의 헬퍼와 주택 및 피해자 보상제도, 아동 및 노인학대 교육 및 방지책, 상담방법 등을 전문변호사, 경찰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상담인들이 강사로 초빙된다. 총 5회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 수여와 함께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등록비는 무료.

▲문의: (646)618-1012 조앤 김 joann.kim@kafsc.org

미스바 회개운동 준비기도회 시작

뉴욕교협, 감사의 달 맞아 뉴저지 사랑의집 방문

뉴욕교협이 미스바 회개운동 집회에 앞서 11월 2일 오후 3시 교회회관에서 준비기도회를 시작했다. 범 교계 제 1차 준비기도회는 11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안디오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열린다.

2일 예배는 부회장 이준성 목사 인도로 회계 이광모 장로가 기도한 후 회장 김희복 목사가 “시행하리라”(요14:24)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48회기 첫 사업인 미스바 회개기도 운동을 얼마나 눈물로 준비해왔고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뉴욕교협 임원진이 뉴저지 사랑의집을 방문해 기념촬영 했다.

시작하는지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하나님이 한 번



한기부 뉴욕지부 8대 대표회장 김경열 목사가 취임했다.

“부흥사의 푸른 계절이 되도록 최선”

한기부 뉴욕지부 8대 대표회장 김경열 목사 취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뉴욕지부 8대 대표회장 김경열 목사 취임식이 11월 7일 오후 2시 뉴욕영안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 한기부 이사장 송일현 목사가 참가해 취임패를 증정했다.

김경열 목사는 취임인사에서 “요즘 부흥회를 잘 안하지만 부흥회는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심령변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보다는 질로 받은 은사대로 부흥사의 푸른 계절이 되게 하는 일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며 성령의 역사와 세계 복음화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예배는 사회 박현영 목사(퀸즈순복음교회), 찬양과 경배 유태웅 목사, 대표기도 한준희 목사(뉴욕성원장로교회), 성경봉독 송윤섭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 찬양 예배다 중창단, 설교 방지각 목사(효신교회 원로), 헌금송 유태웅 목사, 헌금기도 허상회 목사(뉴저지성도교회), 합심통성기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통성기도는 김정숙 목사(즐거운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

해, 권캐더린 목사(기쁨과영광교회)가 한인디아스프라 교계를 위해, 육민호 목사(주소원교회)가 한기부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 송일현 목사의 인사와 취임패 증정이 있었으며, 황동의 목사(전 뉴욕 지회장)의 권면, 김용걸 신부의 축사 및 영상 축사들이 있은 후 김경열 목사의 인사와 축도로 마쳤다.

송일현 목사는 인사를 통해 한기부의 역사를 소개하고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합동 통합 기감 등 3교단에서 48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2700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는데 미주 한인교회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라며 “이럴 때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가 외치는 자가 되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줄 믿는다. 이번 취임을 계기로 뉴욕에서부터 다시 성령의 불이 불어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실버선교학교 제32기 종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선교훈련은 예수님 카피하는 것”

뉴욕실버선교학교 제32기 종강예배

이 시대의 교회에서 노년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가운데, 뉴욕실버선교학교 제32기 종강예배가 11월 1일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대표 김재열 목사는 “선교훈련이란 예수님을 카피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자세가 예수님으로 각인되는 것”이라며 “10주 동안 배운 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 나갈 것을 기대한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 달려가라”고 부탁했다.

이어 수료증을 전달했다. 32기에는 이문자, 이상웅, 임승준, 문복순, 윤관진, 박현영, 노재화, 최정화, 송재웅, 박상례, 배용주, 김은희, 최동훈 등 13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예배는 인도 김경열 목사(훈련원장), 대표기도 최윤섭 목사, 실버미션찬양팀 찬양, 설교 한재홍 목사(이사장), 헌금기도

박현영 목사(교수), 인사 김재열 목사(대표), 인사 윤관진 전도사(32기 대표), 광고 이형근 장로(사무총장), 축도 김재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예수님의 심장”(눅8:36-39)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며 “주님을 위해 한 심령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 생명 드러 일하는 삶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뤄지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과정 후 이어지던 단기선교는 팬데믹으로 이번에도 못하게 됐으나 11월 14일 뉴욕장로연합회가 주최하는 다민족선교대회에 뉴욕실버미션 팀이 참가해 찬양한다. 33기 교육은 내년 2월에 계속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친교모임에서 방지각 목사가 식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뉴욕원로목사회 감사절기 맞아 친교모임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회장 김종원 부통령)가 감사절기를 앞두고 지난 11월 2일 후러싱 삼일각에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친교 모임을 가졌다. 원로목사회는 지난 수개월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다.

예배는 소의섭 목사 인도로 김원기 목사의 기도, 림인환 목사의 “하나님의 결단”(막 10:17-18)이란 제목의 설교, 이종성 목사의 봉헌기도, 뉴욕교협 신임회장 김희복 목사와 21회방재단 변종덕 이사장의 축하인사, 김종원 사관의 인사, 이병홍 목사의 광고에 이어 김용걸 신부

의 축도로 마치고 방지각 목사의 식사 감사기도 후 오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21회방재단 변종덕 이사장, 김소보석 김남표 대표, 뉴욕교협 김희복 회장, 국제사랑재단미주동부지회 회장 이병홍 목사, 새생명장로교회 허윤준 목사,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뉴욕지회장 김명옥 목사, 미동부생명전환원장 김영호 목사의 후원금과 물품으로 푸짐한 선물 나눔의 시간도 있었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13-15일 새벽 6시, 낮10시, 오후 2시, 저녁 7시30분, 감사 회혁 목사(LA 주안예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LA 주님세운교회 담임)

⑤삼상7:1-17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미스바 회개운동은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⑥동포사회와 뉴욕교계와 각 단체와 특별히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⑦미국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대치되는 낙태와 동성연애와 우상들을 버리고 정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어 세계 선교하도록 사용하소서.

⑧한국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특히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⑨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⑩한 영혼을 건지는 전도와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한편 뉴욕교협은 지난 3일 감사의 달을 맞아 이웃사랑의 첫 발걸음으로 “사랑의 집”(전 모세 원장)이 위치한 Egg Harbor City(NJ)까지 방문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총14명이 함께 탑승한 밴에서 미스바 회개기도회 40일 준비기도 2일차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다(일 현재 명).

뉴욕교협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진행하는 연례 “사랑의 터키 나누기”(120달러 상당)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교회나 목회자, 평신도들은 뉴욕교협사무실(718-279-1414)로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제 4회 뉴욕 목회자사모 위한 “침과 영성” 첫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라”

제 4회 뉴욕 목회자사모 위한 “침과 영성”

뉴욕 목회자사모들을 위한 “침과 영성” 제 4회 세미나가 11월 8일 저녁부터 9일까지 이상목 목사(이여리한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됐다.

저녁 5시 뉴욕피어선예동교회(담임 김홍배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는 준비위원장 김홍배 목사의 오리엔테이션 후 장규준 목사(차세대리더십)가 개회예배를 인도했으며 저녁식사 후 이상목 목사(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KAPC 남부노회장)가 찬양과 말씀을 진행했다.

장규준 목사는 이상목 목사와 함께 1회부터 시작한 “침과 영성”에 대해 소개하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2000년 캠퍼스선교 사역자로 뉴욕에 온 이후 승승장구했지만 10년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거의 막바지에 교회바닥에 엎드려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며 기도하면서 주변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역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그러면서 힘들게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시키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

다. 본문 5절을 보면 첫째, 예수님과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둘째, 가지인 우리 인생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셋째,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의 인생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관계회복을 갖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 관계가 더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녁식사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 이상목 목사는 “의인중 악인을 골라”(마13:4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참새가 15장 6절과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언급된 의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창세기 17장 사건에서 말씀한 할례, 이름개명, 자아죽음 등의 필요에 대해 설명했다.

9일은 오전 9시부터 이상목 목사의 찬양과 말씀이 있는 후 오찬이 있었으며 이어 찬양 후 기도사역을 이예스터 목사(인터내셔널사랑교회 담임)가 진행하고 간식시간을 가진 후 다시 이상목 목사가 찬양과 말씀으로 진행했다.

사모들을 위한 “침과 영성” 세미나는 내년 3월경 뉴욕에서 제 5회를 계획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청교도 신앙 배우는 영적대각성 온라인부흥회

11월 15-20일, 미주한인들을 제2의 청교도로..

자마와 청교도 400주년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유튜브를 통해 400주년 기념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를 개최한데 이어 금년에도 '청교도 신앙 배우는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가 열린다.

오는 11월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열리는 이번 부흥회는 자마와 청교도신앙회복영적대각성부흥회 준비위원회(대표 한기홍 목사, 김춘근 장로)가 주관하고 각 지역 교협과 미주성서화운동의 주최로 6일 동안 아침과 저녁 하루 2개의 청교도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30분 메시지가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유튜브에서는 '2021 청교도 신앙회복 온라인 부흥회'를 검색하면 영상을 찾을 수 있다.

15일(월)은 한기홍 목사(은혜한교회)의 "왜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가?"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의 "청교도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메시지가 선포된다.

16일(화)에는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의 "청교도 말씀 사랑"과 위성교 목사(복가주 뉴라이프교회)의 "청교도의 기도생활"이다.

17일(수)에는 호성기 목사(

필라안디옥교회)의 "청교도의 차세대 신앙전수"와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의 "청교도가 세운 위대한 미국"이다.

18일(목)에는 진우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청교도의 청지기 정신"과 이성철 목사(달라스연합감리교회)의 "청교도 교육"이다.

19일(금)은 이은상 목사(달라스세미한교회)의 "청교도 예배 개혁과 주일성수"와 권준목 목사(시애틀형제교회)의 "일터에서의 청교도"이다.

20일(토)은 손정훈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의 "청교도의 가정사역"과 김춘근 교수(자마)의 "청교도와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미주 한인성도들을 미국을 회복시킬 제2의 청교도로 준비시키고, 청교도들의 신앙모범을 구체적으로 배워 적용시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교회와 성도들을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 한인 성도들이 미국에서 존경받도록 준비시키며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준비위원회 측은 밝혔다.

▲문의: (310)995-3936, kang@jamglobal.com



밸리교협 주관 목회자 친선골프대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밸리교협 주최 목회자 친선골프대회

밸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조남민 목사)가 지난 11월 1일 목회자친선골프대회를 무어팍에 있는 티에라 레하다 골프코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2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골프대회에서 우승은 하모세 목사(고백하

는교회), 준우승은 서중은 목사(새생명중앙교회)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대회에 참석한 정요한 목사(평통LA협의회 종교분과위원장)는 캘러웨이 골프백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밸리연합감리교회 창립 48주년 감사예배에서 류재덕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다

'창립 48주년 감사! 하나님의 히스토리'

밸리연합감리교회 설립 48주년 감사예배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 설립 48주년 감사예배가 7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창립 48주년 감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영상 소개로 시작된 이날 1부 예배는 박승필 장로가 기도했으며 호산나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류재덕 목사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교회(빌1:19-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재덕 목사는 "우리인생의 많은 목표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내어 놓겠는가?"라 질문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귀함을 지키는 교회를 아름답게 생각하실 것"이라 말했다.

류 목사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존귀히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게 될 것"이라며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 소중히 여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미래가 있다"며 "창립 48주년은 우리 헌신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 삶에 얽혀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류 목사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예수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찬식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류재덕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연합예배로 드러진 2부 예배는 배리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장성의 장로 기도, 차세대 콰이어의 찬양에 이어 박성환 목사, 조민희 사모, 존킴 전도사가 '우리가 교회입니다(마 6:15-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성찬식을 가졌으며 류재덕 목사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라데시)가 '신교, 계속해야 하나?(마23:3-4, 28:19-20)', 셋째 날 새벽집회는 박희진 선교사(카자흐스탄)가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잠17:22)', 저녁집회는 박연홍 선교사(필리핀)가 '하나님나라신교(마 6:33, 롬14:17)', 넷째 날 새벽집회는 최광순 선교사(러시아)가 '우정선교 하나님, 선교사, 현자인(요15:13-16)', 다섯째 날 새벽집회는 임광택 선교사(우크라이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마16:13-20)', 저녁집회는 박조나단 선교사와 박테라 선교사(베트남)가 'VMI 소개-동남아시아의 사역자들(요12:24)', 여섯째 날 새벽집회는 조진희 선교사(몽골)가 '선교하시는 하나님(민11:13-17)', 저녁집회는 안찬호 선교사(캐나다)가 '내가 여기 있다(마 6:8-10)'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또한 금요일 저녁집회는 선교음악회로 드러졌다. 선교음악회는 클라리니스트 장권환 목사와 피아니스트 한실희 사모가 'Clarinet Concerto 2nd Movement by Mozart', 소프라노 장하은이 'Ju veux vivre Opera 'Romeo et Juliette' by C. Gounod',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테너 황진호, 클라리니스트 정권환, 피아니스트 황희성 집사가 'E lucevan le stelle Opera 'Tosca' by G.Puccini', 바이올리니스트 민신영, 첼리스트 윤영진, 피아니스트 현희성 집사가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연주했으며 전출연자들이 'The Prayer', '함께 해 주께서 함께해'를 불렀고 모든 참가자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를 불렀다.

한편 7일 주일예배는 본 교회 118주년 창립주일예배 및 파송예배로 드러졌다.

(박준호 기자)

이문영 감리사는 "어린 시절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아시아를 논할 때 일본과 중국만이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성장해 여권파워가 세계 2위이고 드라마 음악이 널리 퍼져 세계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국의 문화콘텐츠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성과 한국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어둠에 갇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까지 복음전하는 일에 힘쓰기 바란다"며 "지금 뿌리는 씨앗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 수확의 때로 이어질 것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선교대회 준비위원회 임원들이 특송이 있었으며 이문영 감리사 축도로 마쳤다.

둘째날 새벽집회는 김철기 선교사(브라질)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마13:44-46)', 저녁집회는 정순호 선교사(방글



AGCTS 가을학기 영성수련회에서 오대복 장로가 강의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KOWIN LA 2021 '글 그림 공모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 KOWIN LA(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LA지부·회장 정석란)가 '제3회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글·그림 장학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애야, 나는 모든 게 감사하다" "엄마, 아빠 저두요"이며 자녀들과 부모님이 서로 소통하는 이야기를 부모와 자녀가 쓴 글(한국어 또는 영어)과 자녀가 그린 그림으로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행사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한다. 참가대상은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초, 중, 고 학생들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장학금이 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응모작품 제출 마감일은 11월 30일. 우편(3530 Wilshire Blvd. #1260, Los Angeles, CA 90010)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kowinlosangeles@gmail.com, 웹사이트 www.kowinla.org



엘피스 패밀리 बैंक

엘피스가정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는 엘피스 패밀리 बैं크를 21일(주일) 오후 5시 옥스포드플레이스호텔에서 갖는다.

▲문의: (213)700-9928

시니어 생활 건강가이드 출판기념회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니어들을 위한 종합가이드북 '시니어 생활 건강가이드' 출판기념회가 오는 11월 13일(토) 오전 10시 30분 남가주 새누리교회(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에서 열린다. 소망사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펴낸 이 가이드북 출판기념회는 본래 10월 30일로 예정되었으나 통버치 항구의 컨테이너 화물적체 현상의 여파로 11월로 연기됐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GMAN University 선교공방교실 개강

GMAN University에서는 선교공방교실을 개설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본 공방교실에서는 천연비누공예, 생활공예를 강의하며 특전으로 1, 2차 훈련시 기본재료를 제공하고 제작된 작품은 본인인 가져간다. 또한 수료자에게는 GMAN 황금기 공예선교사포 임명한다. 등록비는 300달러이며 분납이 가능하다.

▲문의: (714)350-6957 또는 sonministry@gmail.com

21일 온라인콘서트, 12월 순회콘서트

미주복음방송 개국30주년 특별한콘서트 마련

GBC 미주복음방송(am1190 사장 이영선 목사)에서는 2021년 개국 3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콘서트를 마련했다.

1. 온라인 콘서트 '같이 걸어가기': '요계벳의 노래'로 알려진 작곡가 염평안과 찬양사역자 및 보컬리스트 조찬미, 임성규로 이뤄진 CCM 혼성 그룹 '같이 걸어가기'가 21일(주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한다. 콘서트는 유튜브 채널 HIS KINGDOM MUSIC Official로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2. 현장 콘서트 '오늘, 더 은혜': 2021년 힘들었던 우리에게 위로가 돼준 찬양, '은혜'의 작사/작곡가 손경민 목사와 찬양사역자들(지선 전도사, 이윤화, 김정희 사모, 이기명 전도사)이 남가주 7곳의 교회를 순회하며 공연하게 된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공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월1일(수) 저녁 7시30분-8시30분: 남가주 동신교회(백정우 목사), △12월3일(금) 저녁 7시45분-9시: ANC 은누리교회(김태형 목사), △12월4일(토) 오후 6시-8시: 샘물교회(정기정 목사), △12월5일(주일) 오후 5시-6시: 남가주살롬교회(김준식 목사) △12월 8일(수) 오후 8시-9시15분: 토렌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 △12월10일(금) 오후 8시-9시15분: 선한목사교회(고태형 목사) △12월11일(토) 오후 6시-7시15분: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

▲문의: (714)484-1190 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성경적 지도자의 자질' 주제

AGCTS 가을학기 영성수련회, 심상은 학장 강의

AGCTS(학장 심상은 박사) 2021년 가을학기영성 수련회가 5일과 6일 1박2일간 헌팅턴 비치에 있는 본교 학우 에스테르 전도사 집에서 열렸다.

매학기 종강과 함께 시작되는 AGCTS의 영성수련회 이번 강사는 오대복 장로와 심상은 학장이 맡았다. 토요일 오전에 열린 수련회 첫 시간 오대복 장로는 "폐혈증으로 죽어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며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권면했다.

두 번째 시간 '성경적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심상은 학장은 "성경중심의 지도자란 성경으로 부터 지도력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삶이 빚어져가고, 성경의 의도와 내용을 잘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용하고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요일 저녁은 본교 임창수 학장이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을 중심으로 말씀묵상 및 나눔의 시간을 인도했으며 심상은 학장 인도로 성찬식과 기도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주최 세계선교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에 복음을'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주최 세계선교대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주최 세계선교대회가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에 복음을'이라는 주제로 1일부터 7일까지 개최됐다.

한의준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어 있을 때에도 코로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각 나라의 빗장을 여시고 초창한 9개국 14명의 선교사들이 무사히 하와이에 올수 있게 하셨다"며 "코로나로 선교사역이 어렵고 많은 선교후원이 중단되고 있는 이때에 선교대회를 통해 쉽고 격려를 통한 영적 재충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누는 간증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이번 선교대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선교적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선교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재원 장로(세계선교대회 준비위원장)는 "비행기를 다섯 번씩 갈아타고 오시기도 하고 백신을 네 번씩 맞고 온 분들 등 우여곡절 겪고 오신 분들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삶속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세계선교대회가 열리게 돼 감사하다. 선교대회 참여한 선교사들은 편안한 삶과 영적 재충전이 되기를 바라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를 향한 비전과 사명 받아 누리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첫날 저녁 개회예배는 선교사 입장, 한의준 목사 개회선

포,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이어졌다. 이어 준비위원장 박재원 장로 환영사, 한의준 목사 참가자 소개 및 환영, 그랜트 하기야 감독,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축하영상, 한정민 권사(해외선교부장) 기도, 테너 황진호 집사 특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설교는 이문영 감리사가 '맛있는 치킨의 유혹(롬 10:14-15)'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문영 감리사는 "어린 시절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아시아를 논할 때 일본과 중국만이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성장해 여권파워가 세계 2위이고 드라마 음악이 널리 퍼져 세계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국의 문화콘텐츠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성과 한국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어둠에 갇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까지 복음전하는 일에 힘쓰기 바란다"며 "지금 뿌리는 씨앗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 수확의 때로 이어질 것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선교대회 준비위원회 임원들이 특송이 있었으며 이문영 감리사 축도로 마쳤다.

둘째날 새벽집회는 김철기 선교사(브라질)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마13:44-46)', 저녁집회는 정순호 선교사(방글

예배당 50%... '방역관리' 긴장 속 활기

'위드코로나' 첫 주일예배 표정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첫 주일예배를 드린 한국교회는 비록 예배당의 50%였지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회복 그 자체를 감사드리며 은혜를 나눴다.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겸손과 친절과 환대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7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대성전 앞에선 마스크를 쓴 성도들이 간격을 유지한 채 줄을 맞춰 입장했다. 성도가 교회 입구에 마련된 출입 확인 기계에 등록증을 갖다 대자, 기계 속 작은 화면에 이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라는 문구가 떴다. 발열 여부를 확인받고 손 소독을 마친 후에야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예배 회복을 위한 총동원 주일' 예배를 드렸다. 교회는 사전에 교회 홈페이지와 소속 교구 등에 백신 접종 여부를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QR코드 인증이 어려울 성도는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등록해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드 코로나로 달라진 예배 분위기는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김병삼 목사)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성도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를 찾았다. 만나교회 관계자는 "전체 성도의 40% 정도가 교회를 찾은 것 같다"고 했다.

김병삼 목사는 설교에 앞서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한 성도가 '목사님 2년 만이에요'라고 인사를 하더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오늘은 50%까지 참석이 가능한 첫날"이라며 "앞으로 10시 예배와 12시 예배, 토요일 배로 분산되면 조금 더 많은 분이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연동교회(김주용 목사)는 이날 1000명 넘는 교인들이 교회를 찾으면서 오랜만에 활기를 보였다. 찬양대원들도 울며 처음 그동안 비어있던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했다. 이날 교회는 4차례 예배를 드렸다. 아직 교회에서 식사할 수 없어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했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상태 보니 젊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걸 꺼리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이 교회로서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 중앙성결교회(한기체 목사)도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오전 11시15분에 드린 3부 예배에는 예배당 1650석의 절반이 찼다. 한기체 목사는 "교회에서 참석하지 않았던 성도 가운데

한 결과 거의 모든 성도가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모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 대면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배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교회 스스로 정부의 지침보다 더 엄격하게 예배당 인원을 축소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남포교회(최태준 목사)는 이날 주일예배를 전체 수용 인원의 30% 수준에서 드렸다. 교회 측은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당회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교회는 다음 달부터 50% 참석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 남서울은 해교회(박완철 목사) 역시 이날은 30%만 수용하고 차차 예배 참석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는 지난달 열린 가을 전도축제 '블레스 2021'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결신자들과 함께하는 주일예배를 드렸다. 앞서 성도들은 1만여명의 전도 대상자인 'VIP'를 미리 정했고 축제 기간 현장 3000여명, 온라인 1만여명 등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454명이 결단했다.

회복을 염원하는 교회들의 특별행사도 진행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8일부터 20일까지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를 연다.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도 8일부터 12일까지 제19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를 개최한다. 서울 은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역시 17-19일 '팬데믹을 이기는 힘'을 주제로 회복 축제를 준비 중이다.

"감사 계절, 자율방역으로 일상예배 회복하자"

한교총, 33개 회원교단과 5만8천여 교회 일상예배 회복캠페인 진행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준현 목사)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추수 감사 주일을 앞두고 한국교회와 함께 일상예배 회복 캠페인을 진행한다.

'추수 감사의 계절, 일상예배를 회복합시다'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한교총 33개 회원 교단과 5만 8000여 교회가 참여한다.

한교총은 4일 이들에 공문을 보내 "2년여의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섰다"며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일상예배 회복 주일'로 지키며 흠어진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독려했다.

한교총은 캠페인 진행 목적

을 "그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교회들의 침체를 극복하고, 교인들의 예배당 예배 참여를 독려하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교회 집회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속해서 교회의 예배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여전히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의 자율방역이 교회 내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8가지 '예배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자율방역지침'도 정했다. 지침엔 예배당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예배당 실내 환기와 소독, 출입자의 개인 방역을 엄격

하게 관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교인의 예배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다음은 한교총이 제시한 8개항의 자율방역 지침이다.

1. 예배당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2. 교회시설 내에서 KF94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합니다.
3. 예배당 실내 환기와 소독, 출입자의 개인 방역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4. 예배당 내 식사를 금지하고, 소모임 운영을 자제합니다.
5. 모든 교인은 스스로 몸 상태를 체크하여 사소한 이상이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6. 초중고 학생 예배는 학교의 방역지침을 준용합니다.
7. 백신 미접종 교인의 예배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합니다.
8. 백신 추가접종자는 추가접종을 통해 돌파 감염을 예방합니다.

"차별금지법 논의시도 중단하라"

한교총·한기총·한교연 문 대통령에 공동 성명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준현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3개 개신교 연합기관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세 기관은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입법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총 4개(

장혜영안 이상민안 박주민안 권인숙안)이다.

세 기관은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세 기관은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성 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토대로 우

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46%)이 찬성(32.3%)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도 인용했다. 세 기관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교육계와 종교계, 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했고 여당 일부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자유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금권선거와 전쟁" 초강수 둔 감리교단

지나달 선거법 개정...유권자 2배, 젊은 목회자에 대거 투표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던 감리교단이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유권자 규모를 종전보다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유권자 수를 많이 늘리면 출마자가 금품이나 향응으로 표심을 흔들 여지가 줄고, 이에 따라 금품 선거의 유혹이 휘둘릴 가능성도 작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대책이 마련된 건 지난 달 27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에서 열린 기감 제34회 총회 임법의회에서였다. 임법의회는 교단의 법령인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행사다.

그간 기감 선거법에서는 유권자를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임법의회에서는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 지역 부담임자 제외)와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개정됐다.

'정회원 11년급'이던 선거권자를 '정회원 1년급'으로 낮추면서 내년에 치러질 감동 선거부터는 젊은 목회자들이 대거 투표권을 갖게 됐다. 9000명 수준이던 유권자 수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감 내부 관계자는 "거의 모든 감리교 목회자와, 그와 같은 비율의 평신도가 선거권을 갖게 됐으니 '유권자 2만명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이 마련된 건 감리교의 '선거 흑역사' 탓이다. 기감에서는 감독회장이나 감독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금권선거

시비가 불거지곤 했다. 감독회장만 하더라도 4년 전임제로 바뀐 2004년 이후 선거 후유증 탓에 임기를 온전히 채운 이는 신경하 목사 유일하다.

기감에서는 '선거→불복→소송'이 이어지는 일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2010년엔 다른 교단의 장로를 데려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는 촌극이 벌어졌고, 2019년엔 임법의회를 앞두고 제비뽑기로 당선자를 가리자는 제도가 진지하게 논의되기까지 했다.

기감 서울연회 감독인 이광호 목사는 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탓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말이 많았다"며 "교단의 모든 정회원을 존중하는 풍토가 만들어

졌다"고 평가했다. 서울남연회 소속 한 목회자는 "감리교회 젊은 목사들의 발언권이 힘을 갖게 됐다"며 "선거문화를 바꾸려는 교단 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해법이 계속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감에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에는 다채로운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모든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180일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도록 했다. 유권자에게 공약을 알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 캠프를 결성하거나 모임을 주선해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했다.

연회나 지방회, 연회 자치기관 등이 여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평신도 선거권자의 15%를 여성으로 못 박은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교회부터 공정 대선 앞장서자"

기운실 '공명선거센터' 가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운실)이 공명선거센터를 출범시킨다. 내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 감시활동을 위해서다.

기운실은 3일 "2017년 기운실이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을 요청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같은 조사에선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상당수였다"며 공명선거센터 출범 이유를 밝혔다.

기운실은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는 한국교회에 언제나 중요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며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에 개입해 수많은 불의와 악을 저질러 온 것을 반성하며 향후 선거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명선거센터에서는 공명선거 모니터링센터 통해 파송한 요원들이 설교를 비롯한 예배를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회가 공식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자료와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은혜로운 동행' 대규모 기도운동

예장합동 노회 163곳·교회 1만1700여곳 참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이 내년 4월까지 전국 163개 노회와 1만1700여개 교회가 동참하는 대규모 기도운동을 벌인다. 운동은 2008년 시작된 '기도한국'과 지난 3월 시작된 '프레이 어게인'의 명맥을 잇는 기도회복운동이다.

예장합동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교회에서 '은혜로운 동행기도운동' 설명회를 열고 전국적 기도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배광식 총회장은 "울산에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16년 전부터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뒷산에서 주일 밤마다 기도했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면서 "코로나 등으로 총회와 전국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크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장합동이 과거 1만

2000개 교회에 300만 성도가 있다고 했지만 수백개의 교회가 이미 사라졌고 60만 성도가 떠난 상태"라면서 "교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바위에 앉아 밤새 눈물의 기도, 가슴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총회장은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는 해법은 기도운동, 성령운동 외에는 없다"면서 "우리 총회가 앞장서 성령운동과 영풍(靈風)운동을 일으키자"고 당부했다.

설명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최남수 의정부 광명교회 목사는 "예수님은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셨다"면서 "전국교회는 기도의 제단에 불을 꺼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과 성도 수를 자랑하지 말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분위기만 자랑해야 한다"면서 "기도운동

을 통해 교회와 노회, 총회가 국가 대표급 '기도발전소'가 될 때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배 총회장은 기도운동 본부장인 장봉성 서대문교회 목사에게 기도운동 깃발을 건넸으며, 김찬곤(안양 석수교회) 박장건(제주 동흥교회) 목사 등에게 지역본부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 목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도운동의 불을 교회 가정 직장 사회에 들불처럼 붙이자"면서 "그럴 때 지금의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합동은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표어 아래 내년 1월까지 14개 지역별 기도회를 연다. 2-3월에는 노회별 기도회를 열고 4월 10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성서와 기독교 전통을 지목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창세기 2장 15절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생태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환경 살리기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변화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청지기 사명을 받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죄로 파괴된 데 회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죄악을 더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며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야 할 삶의 방식, 제자도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강연자로 나선 빛의자녀교회 김형민 목사는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김 목사는 "3년 전 샤인 환경연구소를 시작해 교인들을 위한 환경 교육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교회 주부와 교인들에게 배부되는 과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목장예배에서도 환경 보호에 대한 토론과 나눔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죄로 환경 파괴..."

침신대 '지구환경과 생태위기' 신학 콘퍼런스

지구 환경과 생태계 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의 신학적 해석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침례신학대(총장 김신배)는 1일 대전 유성구 학교 교단기념대강당에서 '지구환경과 생태 위기'를 주제로 신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선 침신대 박경희(구약학) 김용복(조직신학) 교수가 '인간과 생태계를 향한 심판 신탁'과 '환경파괴와 생태신학'에 대한 조직신학적 반성과 재해석을 주제로 각각 논문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호세아와 예레미야의 예언 메시지를 통해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초래한 생태환경 오염으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부흥의 정점에서 멸망하는 시기를 예언하고, 예레

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경험했다.

박 교수는 "두 왕국의 멸망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땅이 병들고 땅에 속한 생명 공동체가 함께 멸망한다는 걸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인간과 땅은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연약 관계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의 연약 관계 안에서 돌아와 그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자원 개발을 남용해선 안 되고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논문 발표자로 나선 김 교수는 "환경 파괴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느냐도 중요하다. 어떻게 그 해결 방안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느냐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70년대부터 생태계 위기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 본격화됐다. 역사학자인 린 화이트 2세

선교 펴기

필리핀

1. 계속되는 코로나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한국 선교사 60여명이 코로나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3,000명의 한국 선교사 중에 3분의 1이 한국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잡보양가 도시는 지난 8월부터 계속해서 주말은 봉쇄를 강화하여 모든 사업과 외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무디어져 갈 뿐이고 어떤 대책이 마땅히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작년 3월부터 길거리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못가고, 백화점도 갈 수 없고, 집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현지 교회들은 11월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초대할 많이 하지만 못 가겠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집에서 거리가 멀어, 하루 자고 와야 하는데 외지고 가난한 지역 교인들은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지 않기에 코로나에 조심해야 합니다. 두 달 전에 학교 선생 아그네스 자매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서 죽었는데 바로 비닐로 칭칭 감아 웅덩이에 넣고 파묻는 것이 전부였고, 가족도 만날 수 없었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2021년 새학기 시작

코로나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필리핀에서 사립학교 180여 곳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립학교들의 학생들은 절반만 등록한 학교가 많고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과제물은 부모들이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고학년들의 과제물은

어렵다보니 새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잘 사는 나라 학생들만 가능하고 필리핀은 모듈이라고 하여 시험지에 수업내용을 복사하여 일주일에만 번씩 학교로 부모들이 와서 받아갑니다. 수업내용을 과목마다 복사를 하여 일주일마다 학생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대면 수업할 때보다 학교 복사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업료(매달 2천원)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가 선교목적으로 외진 무슬림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수업료를 매달 2천원만 받는 것이 고 시내의 대부분 사립학교는 한 달에 보통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번 2021학년 새학기가 9월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학생은 126명이며 작년보다 20여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새희망학교는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사립학교는 절반도 등록을 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으며, 같은 소속 선교사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두 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3. 공선교사 수율

공선교사는 2-3개월 정도만

생각하고 한국에 갔다가 여러 가지 일로 9개월 정도는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14일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자궁선종 수술을 하여 18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엔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추석이라고 하여 며칠 더 빨리 퇴원시켰습니다.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때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어 잠시 군대에서 휴가 나온 헌탁이가 간호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에 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웠었는데 수술이 잘 되어 감사합니다.

4. 준탁이 대학교 수시 합격

2022학년 대학교 수시전형에 준탁이는 홍익대, 국민대, 경희대, 건국대, 한양대, 한동대 6개 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에 원서를 냈습니다. 경희대로부터 시작한 합격 통지서는 홍익대를 마지막으로 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준탁이까지 한국 대학에 합격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껴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외진 곳에서 아들 두 명을 현지어 학교에 보내면서 주님께 맡겼을 때, 주변의 다른 한국 선배선교사들이 이

런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부모가 선교사이자, 자녀는 선교사가 아니니 자녀를 희생시키지 말고 국제학교에 보내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럴 형편과 여건이 전혀 안되어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교육시킨 저희 두 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필리핀 남부 외진 곳에서 현지어 학교 다니는 한국의 대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준탁이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잡보양가 도시에 있다가 마닐라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 왔었고,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공물을 부어주셨습니다.

5. 학교 정문 완성

학교 앞의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교문을 옮기고 공사를 하였는데 재정이 될 때마다 조금씩 하였는데 이제 학교 정문이 깨끗하게 완성되었습니다. 11년 전에 처음 학교를 시작할 때는 학교의 길이 오토바이만 지나다닐 정도로 비포장도로에 좁았고 학교 정문은 대나무로 만든 임시 문이었는데 이제는 학교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학교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학교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새희망 학교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정윤 / 공윤자 선교사 ohngongtak@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4강 / 요셉(3)(창 42-50장)

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과 같이 복직이 된 날부터 그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갈 날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매일 매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갇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은 말 그대로 왕의 측근들, 애굽의 정치와 경제, 군사와 법을 아는 자들이 갇힌 곳이었습니. 한때는 왕과 함께 세력을 가진 자들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왕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으로 온 사람들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 절대왕권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습니(예3:1,11, 7:1-10). 그런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돌봐주는 잘 생긴 외모에 신실한 외국인 청년 요셉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매일 요셉을 붙들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으며 또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는지 요셉에게 받은 한탄하듯 받은 자랑하듯 자세히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요셉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애굽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특별 강의를 받습니. 그것도 학생 1명에 전직 장관급 교수진들을 모시고 집중훈련을 받습니. 바로 그 시간들이 요셉이 감옥에 가야하는 이유였고 감옥에 더 있어야 할 이유였습니.

죄수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 요셉도 다 알 수 없는 이유와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술 말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부터도 2년을 더 그곳에 있습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였지만 요셉을 통해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맛보기로 드러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야곱의 가족들과(창45:11) 애굽의 백성들

(창41:55)을 넘어 온 지면의 각국 백성들(창41:56,57)을 위해서는 더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창41:1)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수직 상승을 하도록 하십니다. 무덤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은 요셉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꿈을 두 번 주셨듯이 바로 왕에게도 같은 내용의 다른 꿈을 주십니다(창41:1-7). 그런데 애굽의 어떤 점술가와 현인들도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창41:8). 그때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이 되어 다시 왕의 측근이 된 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고(창41:9-13) 요셉은 이번에는 진짜로 왕의 부름을 받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을 만납니다(창41:14). 그리고 두 개의 꿈같은 일(창41:15-32). 그런데 만일 요셉이 단지 바로 왕의 꿈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요셉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감옥을 나와 애굽에서 서민의 생활을 하던지 형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배운 것이 있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일할 일곱 해 흉년으로 말미암아 땅이 아니라 하리이다”(창41:33-36).

요셉은 단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합니다. “풍년 때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각 성읍에 쌓으라”는

그럼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심히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그럼 그 꿈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집뿐 아니라 애굽 백성과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사 용된 무대장치와 같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보디발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과 애굽

이미 살펴본 대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될 것을 자원함으로(창43:8-10, 44:14-34)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마무리 됩니다(창45:1-28). 형들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창42:28)라 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항변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지는 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 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갈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 하도다”(창42:21).

그리고 마침내 유다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까’(

로 그리고 총리로 22년을 산 요셉은 애굽의 화려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애굽은 머물 곳이 아닌 나갈 곳을 말씀하셨습니다(창15:13,14, 47:30, 50:24). 애굽은 머물러 살 곳이 아니라 출애굽을 위한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에게 애굽에 오거든 고센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창45:10, 46:28-47:6). 고센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풍요로운 애굽의 생활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위함이었습니. 이 구별됨은 앞으로 출애굽을 지나 가나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안식’하는 요셉

다시 시간이 빠르게 흘러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 머문지 17년의 시간이 지나(47:28) 야곱도 죽습니(창49:33). 그리고 다시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 야곱이 죽고 5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56살이었고 지금 임종을 앞둔 요셉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서 힘을 가진 자로 살았을 야곱과 함께 한 17년의 시간도 야곱의 축복과 죽음을 언급하고 야곱의 죽음 이후 그 54년의 시간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있는 자로 애굽의 풍요를 누렸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야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그 비전에 맞는 삶을 살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두지 말고 메고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안식에 들어갑니다(창50:24-26). 요셉 역시도 그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의 나그네였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낸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이젠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다시 재조명하시며 드러낼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lee0414@gmail.com

요셉 역시 그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의 나그네였음을 증명...

...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낸 하나님의 열심

제안은 탁월한 정치, 경제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은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창41:37-45). 요셉을 통해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살아납니다(창41:46-57).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니(창41:46)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성경의 역추적

이제 한번 요셉의 삶을 역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만 누가 중재합니까?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되어 왕의 측근으로 있던 술 말은 관원장이요. 그럼 요셉은 그 관원장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감옥입니다. 그럼 요셉은 왜 감옥에 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입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왜 만났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종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보디발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기 때문입니다.

의 바로 왕과 같이 선한 역할도 있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과 요셉을 유혹하다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도움을 받고서도 요셉을 잊어야 했던 술 말은 관원장과 같은 악역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그 사람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들의 깨달음

요셉은 총리가 됨으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리고 자신을 잠시 잊었던 술 말은 관원장도 그들이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일련의 시험기간을 거칩니다(창42장). 자신을 미워하듯 미움과 설움을 받고 자랐을 베냐민을 두고 과연 형들이 얼마나 성숙된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봅니다(창43, 44장). 결국 그 과정에서

창44:16)라고 토설합니다. 그것은 단지 없어진 은잔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묻어버린 범죄였던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창45:4)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창45:5,7)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창45:8).

형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고센땅에 머물라

이미 애굽에서 종으로 죄수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태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출1:8-14)찬393장

아름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 400여 년이 지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히브리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히브리민족을 탄압하나 힘든 노역을 시킬수록 히브리인들은 더 번성하여 장정이 603,550명(민1:46)으로 불어납니다. 전체는 약 200-25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가정'이 '국가급'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인간

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나라의 국민으로 삼으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동시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은 '더욱 번성'하는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출1:15-22)찬214장

히브리인들은 힘든 노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애굽 정부는 태어나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산파들에게 우선으로 하달됩니다(출1:16). 심브라와 부아라는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1:17, 21).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출1:21).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주눅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마10:28)을 경외해야 합니다.

수 그를 위하여(출2:1-10)찬218장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고 난 뒤 레위지파 어느 가정(아브람과 요게벳)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석 달을 키우다가 결국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마침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하셉수트)가 모세를 건져내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갈대상은 노아의 방주 축소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역

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역청은 히브리어 '코페르'를 번역한 단어인데, '코페르'는 '몸값, 속전, 역청' 등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르치고 그 보혈 안에 자녀가 머물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목 좌우를 살펴(출2:11-15)찬212장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중 어느 날 동족(히브리 민족)이 노역하는 모습을 보러갔다 애굽 군사 한 명을 죽입니다. 이 소문이 왕궁에 퍼졌고,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당시의 바로(출2:15) 투트모세 3세에게 모세는 늘 눈에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가 되겠다고 하면 권력욕이 엄청났던 하셉수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세를 바

로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모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수배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후에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출2:12). 사람들의 눈과 시선만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옆을 의식하지 말고 위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골3:1).

금 부르심(출3:1-4)찬411장

어느 날 모세는 호렘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게 하기 위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타는 듯한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출3:5)찬438장

모세가 서 있던 곳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은 하나님의 존전이였으며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천당(The Heaven)'과 '천국(The Kingdom of God)'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을 천당,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지금을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고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한다면 그 시간과 상황은 거룩한 땅 즉,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삽시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21)

999 기도를 아십니까?

성경은 회개와 참회의 기도의 예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회개와 참회기도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적인 참회와 회개, 그리고 공동체적(국가적) 참회와 회개의 기도이다.

개인적인 참회와 회개의 예는 다윗왕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기도한 시편 51편이 대표적이다. 공동체, 국가적 참회와 회개 기도는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그리고 다니엘 9장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999 참회기도라고 부른다.

에스라 9장은 에스라가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내용이며, 느헤미야 9장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다니엘 9장은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드리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이다.

다니엘 9장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보자. 이때가 다리오 원년이라고 기록한다. 다리오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합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군주이고 이 시기가 BC 538년이다. 즉 시간적으로

보자. 우리가 범죄하여 (5절),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6절), 우리 얼굴에 수치가 돌아오고 (7-8절)... 그는 5-19절에 이르는 동안 23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즉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자신이 범죄자이며 불신앙자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였는데, 그런데 과연 그가 죄악을 행하였던가?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나 그는 달랐다. 자신도 역시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한 부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놀라게 된다.



이희갑 목사 (아주사피서대학 교목학과 교수)

다니엘은 공동체의 잘못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회개기도 드려 범죄한 이스라엘 대비, 하나님의 성품(사랑과 긍휼)에 호소

보면 다니엘이 BC 606년 15세 때 포로로 잡혀왔고, 이제 다리오왕 원년이니가 68년이 지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83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곧 70년이 다 되어서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에 젖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뜻밖에도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다.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는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아직도 죄에 가득 차 있는 백성, 준비되지 못한 그들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자복하고 통회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9장이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기도로 돌파하였고 그의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현실을 철저히 분석한 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70년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유다의 회개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래서 9장에서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2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죄의 회개(4-14절, 여기는 백성들의 죄가 나열되고 여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어있다)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간구(15-19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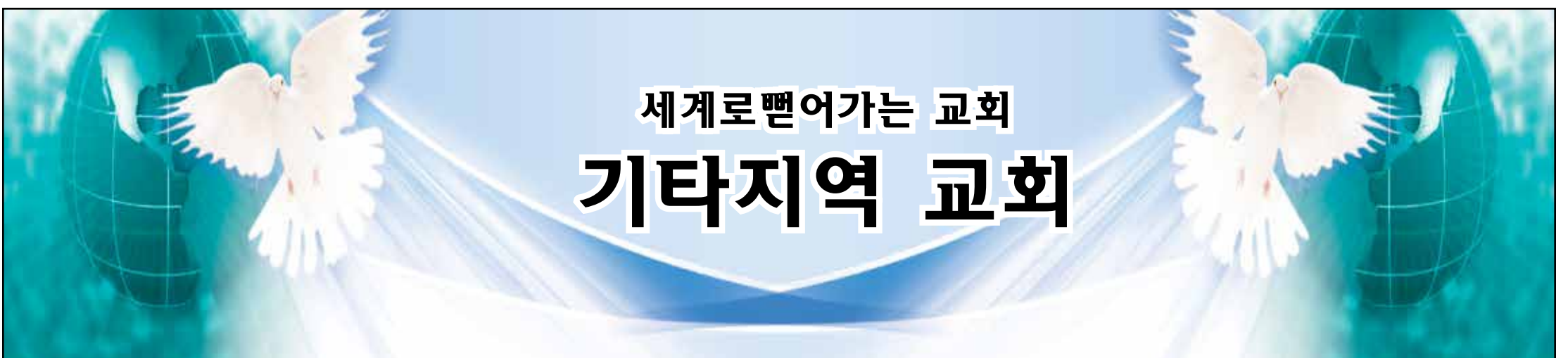
그래서 철저한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다. 범죄, 패역, 행악, 반역을 행하고, 주의 법도/규례를 떠난 것을 회개한다(단9:5).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6절), 주께 죄를 범하였기에(7절) 지금과 같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 시키지 않았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죄를 자백하고, 그는 배움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금식기도 하게 된다(8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 우리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옵나니"(9:9)..."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주의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9:18).

그의 기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적 특성을 비교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이스라엘의 수치, 불순종, 반항적, 죄성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용서가 풍성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성/성품에 호소하여 사랑과 긍휼을 요청한다. 즉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신다.

(15면으로 계속)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교제 및 기도회: 오후 10: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헌정 찬양: 목요일 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청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413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47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501) 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차세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효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k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청교도 첫 추수감사절 400주년기념 청교도복음연구회 제9회 모임 합동기도회로

미국 내 첫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합동 기도회가 청교도 복음연구회(이하 청복연 회장 김필식목사) 주최로 지난 10월 17일 주일예배 후 뉴욕영림교회(담임 김필식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이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온 김경옥 목사(마굿간교회 담임, 웨민총회신학교수)의 사회로 간단한 취지발표 및 기도 후 장숙희 목사(새생명선교교회), 장규준 목사(리바이벌교회), 김필식 목사(UTS 학장, KAM 총회장)가 마감기도를 하며 1621년 첫 추수감사절 때 원주민들을 초대할 자리에서 감사기도를 했던 청교도의 심정을 되새기며 진행했다.

기도 내용으로는 △미국 초기 청교도들을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그 동일한 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Covid-19 팬데믹으로 피폐해진 세계인과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위해 특별히 병을 이기기 위해

이웃 원주민을 초대해 호의에 보답하고 신의를 지킨 초기 청교도들처럼 가족구성원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 일원 개개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는 가운데 상대의 작은 잘못은 용서하고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기억하자는 화해의 절기로 지낼 것과 지난 날 이민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을 상기하고 당장 이번 가을에 코로나로부터

작해(청복연 가정사역원장 김경옥 당시 전도사) 2회 때는 2일 간, 2013년 3회부터는 당일로 하되 김필식 목사(청복연 회장)가 주최해 해마다 청교도와 관련된 주제를 바꿔가며 당해 주제와 관련된 청교도 신앙유적지를 직접 방문, 예배와 세미나를 하면서 청교도 신앙과 신학을 지키며 알려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제 9회



1621년 청교도의 400주년 기념 추수감사절을 맞아 청복연 회원들과 가족들이 기도모임 후 마스크를 한 채 코로나로 인한 상처를 대신해 주중에 편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 식권 카드를 들고 있다.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43.가정은 세계선교의 전초기지

돌을 집어서 호숫가에 던지면 돌이 던져진 지점을 중심으로 작은 원에서 2개 이상의 큰 원으로 여러 개의 원이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동심원(同心圓)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변함 없는 자연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에도 영적인 동심원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 지상명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방향을 영

처럼 앞서거나 뒤서거나 모든 교회가 역순으로 멀리 세계선교, 해외선교에만 집착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선교의 방향, 4단계 영적 동심원에서 가장 핵심 되는 단어가 '땅 끝'입니다. '땅 끝'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을 말할 것이며, 지리적으로 사도 바울의 세계선교의 비전인 로마나 서바나(스페인)(롬15:23)를 말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영적, 선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도 완전히 복음화 되

4:19-20, 5:9-10, 9:6, 10:6-10). 길갈을 거점으로 작전을 세우고 가나안 정복에 나섰고 다시 돌아와 부상자를 치료하고 보급품을 받아 다시 공격하는 방법으로 휴식과 안식, 치료와 회복의 충전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 받고 이방인을 위한 세계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예루살렘과 안디옥교회를 세계선교의 전초기지(Base Camp)로 삼아 3차례의 세계선교여행을 감행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선교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선교보고를 하고, 안식과 휴식으로 영적충

예수님이 제시한 선교의 방향은 4단계 영적 동심원 가장 핵심단어는 '땅끝'

2022년 10주년 세미나는 플리머스 현장에서 "청교도와 결혼" 주제로 진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게 도와주실 것을 간구했다.

또한 △현대 젊은 세대들이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하나고 경원시하는 풍토에 대해 △무너지고 사라져간 청교도 신앙과 정신을 회복해 이민자의 초심을 돌아와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할 것과 조선에 복음을 들고 온 미국 청교도 선교사들의 열정과 비전을 갖도록 간구하는 한편 △

살아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예배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는 축구와 다짐을 담아 각각 기도했다.

청교도복음연구회는 이민교회에서 해마다 하는 추수감사절만 특별히 이 행사를 통해 400주년을 강조해 교회들의 재상기로 인해 전 세계 개혁교회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의 감사와 새로운 각오를 바치고자 결단하는 캠페인의 성격이 있음을 전했다.

한편 이 모임은 2011년부터 3일간 제 1회 가정사역으로 시

모임은 일일행사로 진행됐으나 2022년에는 제 10회 청복연 세미나로 1박2일 일정으로 플리머스 현장에 가서 예배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사소이트에 관한 투어도 있을 예정이며 주제는 "청교도와 결혼"이다.

KAM 주축으로 진행되지만 초교파로 향후 청교도의 복음 연구 헌신자를 위해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문의: (718)939-8278

다니엘영성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여호와와...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출 34:6)"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심으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시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에 호소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 습관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는 분이시다. 긍휼은 2가지 의미가 있다. 이는 용서하는 것(즉 심판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손해를 없이 하는 것)뿐 아니라 한결음 더 나아가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다. 긍휼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연약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Amazing Grace 찬양을 아는가? 이는 젊을 때 수많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데려온 노예선의 선장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그의 고백이다. 그가 나이 들어 곧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의 기억이 점점 쇠약하여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이다." 말씀을 늘 의지하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자. 그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자.
hlee0414@gmail.com

적인 4단계 동심원으로 제시 하셨습니다. 즉 (1)예루살렘(지역사회선교, Community Mission)→(2)유대(국가선교, Nation Mission)→(3)사마리아(특수선교, Special Mission: 장애우, 교도소, 홀리시, 청년, 조폭, 마약, 도박 등)→(4)땅 끝(세계선교, Global Mission)입니다.

동심원이 작은 원에서 여러 개의 큰 원으로 퍼져 나가듯 예수님이 제시한 선교의 방향과 단계 도 위에서 제시한 4단계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단계의 선교내용 중 임의로 선택(Optional)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4단계의 선교를 필수적(Required)으로, 순차적으로 선교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교회나 담임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임의로 골라서 하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선교해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도 세계선교 지상주의로 유행병

지 못한 성도들의 영적 결혼 가정을 통정한다고 봅니다.

'땅 끝'은 선교의 출발지이며 선교의 마무리, 끝맺음, 도착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정 선교의 출발지이며 또한 선교의 도착지로 보는 것이 바로 가정선교(Family Mission)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행복과 축복의 에덴동산에 세웠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이 범죄하므로 최초의 가정은 파괴되었고 그 파괴된 에덴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정선교(Family Missionary)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세계선교의 초석(礎石(머릿돌), Foundation Stone)이며 전초기지(前哨基地, Base Camp)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평원의 길갈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사적 전초기지(Base Camp)를 세웠습니다(수

전 후 다시 물질적 후원(헌금)과 중보기도에 힘입어 다시 나가 세계선교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3가지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1)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마28: 19-20, 막16:15, 행1:8)이며 (2)은 인류가 한 가족(마17:11, 21-23)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마18:35)하기를 원하시며 (3)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요3:16, 14:6, 행4:12)는 것 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3가지 비전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온 인류가 영혼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가족구원, 가정선교를 목표로 영적 결혼의 믿음의 가정부터 복음화 하여 가정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세계선교의 초석, 전초기지로 삼는 가정선교를 감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이해와 관계 통해 친숙한 메시지로 문화에 참여한다!

처치리더스컴, 에드 스테처의 “문화 안에서 신앙 공유” 노하우 소개

복음이 공유되는 모든 시기와 역사적 맥락에서 복음은 어떤 식으로든 문화에 부딪혀왔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베푸시는 동안 복음의 진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학대에 도전했다.

종교개혁 기간 동안 복음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게끔 몰아갔다. 1700년대 후반 복음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노예무역을 폐지하도록 영감을 줬다.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랑과 모든 것에 대한 용서라는 자유로운 선물의 메시지는 수세기 동안 사회변화의 원동력이었다.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그 원리를 적용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히 문화적 참여는 독특한 도전과 복잡성을 동반한다. 많은 이들은 돌격하

고 싶어 하고 예언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길 원하며 그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기를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혹은 다른 공동체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노력할 때 존중의 자세가 매우 중요해진다.

궁극적으로 에드 스테처는 (존중의 자세란)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함의에 이르게끔 만들거나 토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Engaging Culture Well: How to Share Your Faith Critically and Contextually Today).

믿음을 공유하기 위해 이해를 추구하라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 특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예언자적인 설교자' 모드가 되기 쉽다. 우월감과 거들먹거리는 태도는 우리의 증언을 재빠르게 흐리게 만들고 다른 이들이 우리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

때때로 믿음을 공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입을 닫는 것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가 유대인, 그리스인, 철학자들과 함께 추론하는데 시간을 보냈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에 어떤 문맥을 읽지도 않고 무작정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그는 그들과 대화하기 전 이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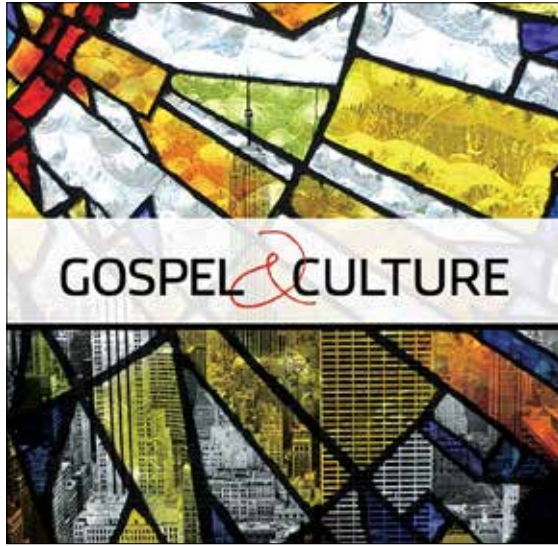
우리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을 관찰한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본다. 바울은 그들의 비문을 읽고 그들의 철

학을 고려하면서 아테네의 청중들에게 자신이 “걸어 다니면서 주의 깊게 당신들의 숭배대상을 보았다”고 말한다(행 17:23).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 문해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비판이나 논평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공유하는 방법을 배운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교감을 맺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잘 공유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뢰가 확립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에게 은혜롭게 대하기를 권면하며(골4:6), 베드로는 불신자들 앞에서 고결하게 살라고 권면한다(벧전2:12). 이것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복음전도에 대한 관계적 접근은 다른 형식들만큼이나 많은 의도성을 필요로 한다(종종 다른 형태들보다 더 많이 요청된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우정, 기도, 환대, 그리고 관대함을 발전시키는 데에 부지런하게 되

종종 다른 문화적 맥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스러운' 연설에 휘말리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더 친숙하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어떤가?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알려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중히 여겨지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각자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측면들이 다양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는 강력한 이미지로 작용했다. 또한 가난하게 사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과 물은 강력한 은유들이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헌신적이고 충실한 아버지로서의 개념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더 멀리까지 전하기를 갈망하는 만큼 우리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의 빈 공간을 복음이 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그들의 신에 대한 선입견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이 진리를 말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은 강력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해를 통해, 관계를 통해, 그리고 메시지를 친숙하게 만들으로써 신앙을 공유하는 것을 배워보자.

복음 전달방법은 존중의 자세로 희망 메시지 공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 신뢰해야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공유하려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이들이 있는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 다른 배경 그리고 다른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

할 때,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공유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 길을 열게 된다.

또한 사람들의 신념과 상관 없이 사람들을 존경과 존중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연설에서 우리

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우리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지를 친숙하게 만들어라

관계를 구축하라

사람들은 관계적인 맥락 안에서 복음에 잘 반응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전도적 노력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확신하면서도 복음이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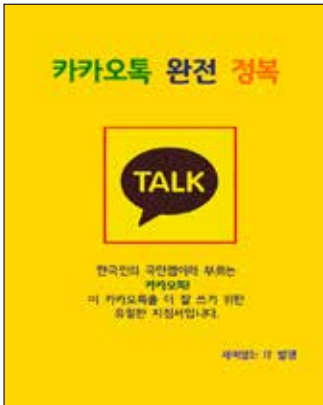
저자 윤승준 선교사

“카카오톡 완전정복”

재미있는 IT대표 윤승준 선교사가 카카오톡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소책자 ‘카카오톡 완전정복’을 출간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많지만 그 기능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안타까움을 안고 모두가 카카오톡을 정복해서 유익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며 본서를 출간했다.



더 배우고 난 후 사용한 사람들

론 한국인들은 영민함이 최고다. 그래서 매뉴얼을 읽지 않는 민족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언가 제대로 사용하려면 제대로 배우야 한다”며 “이 책을 통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본서는 꼭 알아야 할 사항들과 카카오톡의 메뉴와 기능, 사용법 등을 사진과 함께 큰 활자를 사용해 상세히 수록해 모든 이들이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는 무료 전자잡지를 매주 발간하여 카톡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책 구입은 (909)971-7720을 전화번호에 등록해 카톡으로 신청하면 책 구입은 물론, 무료 전자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 또한 한국으로도 배송이 가능해 감사의 계절에 친구,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로도 추천할 만하다.



윤승준 선교사

가 자동반주기, 골프거리 측정기, 버스도착 알리미 등을 개발했으며 저서로는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스마트폰이 재미있게 놀자’ 외 다수가 있다. (이성자 기자)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에 정말 좋은 기능이

저자는 서문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기본부

없다. 눈치껏 배운 것이 전부다. 이것은 젊은이도 마찬가지다. 물

또한 저자는 ‘재아생’(재미있는 IT 생활)이라는 스마트폰으로

저자 윤승준 선교사는 41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세계 최초 찬송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C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